

2020년도 제24차 정기총회

2020년도

제24차 정기 총회 자료집

| 일 시 : 2020년 1월 31일(금) 18:30

|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20년도 제24차 정기총회

2020년도 제24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20년 1월 31일(금) 18:3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 제23차 정기 총회 회의록	
■ 2019년 감사 보고	
■ 2019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사업 총평	
II. 사업보고 및 평가	
【1】조직 사업	
【2】평화·통일 사업	
【3】정보·홍보 사업	
【4】회원 사업	
【5】연대 및 협력사업	
【6】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2019년 결산보고	
■ 임원 인선안	
■ 2020년 사업계획(안)	
사업기조와 방향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조직사업	
■ 2020년 예산안	
■ 부록	
평화여성회 정관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2019년 성명서 목록	
2019년 홍보자료	
회원가입서	

정기총회 순서

I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30~7:00)

II부. 본 회의 (오후 7:00~9:00)

1. 개회선언
2. 서기임명
3. 성수보고
4. 회순채택
5. 전차회의록 낭독
6. 2019년 감사보고
7. 2019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19년 결산보고와 승인
9. 임원 선출 및 승인
10. 모범회원상 시상
11. 2020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2. 2020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3. 기타토의
14. 회의록 받음
15. 폐회

2019년도
제23차 정기 총회 회의록

제23차 정기(제24차)총회 회의록

- 서기: 안지영, 이덕경
- 일시: 2019년 1월 28일(월) 18:4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 주요내용

1. 개회선언

- 안김정애 의장이 18:40로 개회를 선언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서기임명

- 이덕경, 안지영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3. 성수보고

- 안지영 활동가가 재적회원 46명중 위임 14명, 참석 14명 총 2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안김정애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안김정애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다.
- 임원선출 및 승인과 모범회원상 시상을 같이 할 것을 김정수가 제안하다.
- 손희정 회원동의, 김귀옥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5. 전차회의록 낭독

- 이덕경 회원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여혜숙 회원이 동의, 김성은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회의록을 받다.

6. 2018년 감사보고

- 박유희 회원이 사업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다.
- 박유희 회원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독하다.
- 김귀옥 회원이 본회 이월금 마이너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요청하다.
- 김귀옥 회원동의, 이나영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받다.

7. 2018년 사업보고와 승인

- 안김정애 의장이 2018년 사업 총평을 보고하다.
- 김정아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을 보고하다.
- 김정수 원장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을 보고하다.

- 손희정 회원이 동의하고, 한정숙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8. 2018년 결산 보고와 승인

- 별도 자료를 토대로 안지영 활동가가 보고하다.
- 사업비와 운영비 중 프로젝트 비율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여 회계보고자료를 수정하기로 하다.
- 김성은 회원이 동의하고, 이나영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9. 2019년 임원선출 및 승인과 모범회원 시상

- 이덕경 인선위원회위원장이 인선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선출안을 설명하다.
- 김명신 회원이 총회참여 회원이 적고 신규 회원이 늘어나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선출임원들의 후보자 정견을 들을 것을 제안하다. 김정수 상임대표 후보가 회원 확대를 조직기반의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말하다, 여혜숙 갈등해결센터 소장 겸 공동대표 후보는 갈등해결센터의 오랜 애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하고자 했고 공동대표는 김정수 상임대표 후보를 도움을 주려고 하게 되었음을 발표하다.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귀옥 원장 후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활동가들을 확충해야할 때라는 포부와 전망을 발표하다.
- 김명신 회원이 평화여성회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신임공동대표 등에 젊은 활동가들의 영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하며 현행 인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며 기록으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다.
- 김성은 회원 동의, 손희정 회원 재청으로 가하여 받다.
- 신임상임대표가 안김정애 전임대표와 2018년 활동가 및 신임원장과 소장에게 감사인사를 하다.
- 모범회원상은 박인혜 회원과 이덕경 회원이 수여하다.

10. 2019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 신임 대표 김정수가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여혜숙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귀옥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한정숙 회원이 헌법조항의 병역의무와 여성 시민권의 사회적 복무 등의 의제로 젊은 남성들과의 교류를 하여 성인지 감수성 확산과 평화방안 모색을 제안하다.
- 김명신 회원과 이나영 회원이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신임의장 김정수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하다. 기타 페이스북 등 회원대상의 사업홍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다.

- 이나영 회원이 동의, 안지영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11. 2019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김정수 신임의장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김귀옥 회원(신임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이 후원금을 특별 지정할 수 있는지 질문하여 여혜숙 회원이 가능하다고 답하다.
- 한정숙 회원 동의, 안김정애 회원 재청으로 가하여 받다.

12. 기타토의

- 김명신 회원이 총회 자료집에 임원 인선 자료에서 이사들의 임기 시작(최초)에 대해 기록할 것을 제안하다.
- 김귀옥 회원, 이나영 회원이 이에 대해 다른 법인 총회자료의 전례에 없는 사항임을 설명하여, 이사의 임기 시작에 대한 기록 자료는 평화여성회 25주년 자료집 등에 정리하는 것을 제안하다.

13. 회의록 받음

- 안지영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다.
- 안김정애 회원이 동의, 이나영 회원의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이를 받다.

14. 폐회

- 21:00에 김정수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19년 감사 보고

2019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계 감사 보고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중

감사 기간 : 2019.1.1.~2019.12.31
감사 일시 : 2020.1.10
감사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 사 인 : 윤수경

2019년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회계감사는 본회를 비롯,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월별 수지결산서, 금전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와 그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통장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2019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기관 포함)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일반회계

수 입		지 출	
2019년 수입	55,259,942	2019년 지출	52,141,746
전년이월	1,770,981	차년이월	4,889,177
		- 본 회	319,042
		- 갈등해결센터	1,300,597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3,269,538
합 계	57,030,923	합 계	57,030,923

1-2. 특별회계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공모사업』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18,000,000	18,000,000	여성가족부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사업 “참여와 체험을 통한 세대공감 평화통일 교육”	7,000,000	7,000,000	통일교육협의회
2건	25,000,000	25,000,000	

1-3. 남북교류기금

내역	수입	지출	잔액	내역
전년이월	77,664		77,664	
2019년 이자	77		77,741	
합계	77,741	0	77,741	

1-4. 자산 및 부채

- 1) 부동산자산 : 여성미래센터 전세금 55,711,000원
- 2) 부채 (2018년도 차입금) : 1,550,000원

2. 주요 수입에 대하여,

- 2-1. 회비 수입은 예산 3,160만원에 결산 2,842만원으로 예산대비 89.9%입니다.
- 2-2. 후원금은 예산 1,050만원에 결산 1,432만원으로 예산대비 136%입니다.
- 2-3. 평화여성회의 두 프로젝트(특별회계 참고) 2,500만원은 결산액 7,714만원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만, 회비 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모색을 제안합니다.

3. 주요 지출에 대하여,

- 3-1. 사업비 예산 780만원에 결산은 1,283만원으로 예산대비 164%입니다. 프로젝트 2건의 2500만원이 추가되면 3,783만원으로 예산대비 485%입니다. 사무국의 노고가 돋보입니다.
- 3-2.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3,710만원으로 총 지출액 7,714만원의 48%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고 절약한 노력이 보입니다. 사무국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인건비 개선을 제안합니다.

4. 2019년 평화여성회의 회계정리에 대한 감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평화여성회가 사단법인입니다만 사무국의 근무 여건상 다음과 같이 회계 장부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4-1. 결산 시, 장부와 통장의 잔고 일치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만원 단위로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 4-2. 지출 결의서에 일만원 미만은 회계 담당자 전결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지출결의서 작성시 일만원 미만은 월별로 모아서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감사 윤수경 

2019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9년 사업 총평

II. 2019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19년 사업 총평

1. 2019년 한반도 정세의 흐름 개괄

○ 북미 비핵화협상의 후퇴

2019년 1~2월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비핵화 협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018년에 이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의 비핵화 협상안에 이견¹⁾을 드러내 결렬된 이후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역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다시 강조하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볼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 완화(sanctions relief)를 하지 않을 것”(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이라는 기조를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면서 6월 말 판문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이후 성사된 10월 스톡홀름 실무자 협상에서 별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북한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핵화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비핵화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북한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을 맞이하였다. 12월까지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북한은 연말에 노동당 최고위원회를 4일이나 진행한 후 발표한 결정문(2020년 신년사 대체)을 통해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의 기조 하에 “정면 돌파”를 내세우면서 다시금 “장기적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 다시 중단된 남북관계

하노이협상 결렬 후 남북관계도 중단되었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에서 “당사자”로 나서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의 이슈를 한미워킹그룹의 승인 이후로 유보하면서, 북한의 불신은 깊어졌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등 공식적 대화의 채널은 모두 중단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더 나아가 1월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였다. 동시에 남북민간교류 역시 2월

1)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북미협상안의 이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거나,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초 6.15 민족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단 한 차례 열린 후 일체 중단되었다. 북한은 북측은 하노이 결렬 이후 5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을 13차례 발사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중단되었고 신뢰는 위기에 처했으며 대신 긴장은 고조되어가고 있다. 한국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었지만, 한미동맹을 우선시 하면서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한국정부의 역할은 실종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남북사회문화 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거의 중단되었다.

○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시민사회의 저항

2019년 하반기 주요 현안의 하나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였다. 2019년 미국 방위비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섰는데, 미국은 2020년에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를 요구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을 위한 주둔금 분담금 범위를 넘어서 전략자산 운영비, 미군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비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뿐더러, 한국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왔다. 더구나 한일 역사갈등(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역규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소미아(군사정보공유협정) 연기를 중단하려 했으나, 최종 결정 6시간 전에 이를 번복하는 사태에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들의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 평화여성회 2019년 사업 진행 개관

2019년 본회는 “여성평화역량 강화로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기치 아래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용가능한 ‘여성·평화·안보’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재개되는 남북교류와 협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여성평화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여성청년평화 리더십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여성 평화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 I. 성인지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업,
- II.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만들기 사업,
- III. 여성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사업,
- IV. 조직역량 강화사업

등의 주요 사업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I. 성인지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업

- 1)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관련 법, 제도,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다.
- 2)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사업을 전개한다.
- 3) ‘여성.평화.안보’ 담론형성과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
- 4)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1)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관련 법, 제도,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다.

본회는 2019년 한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위한 여성선언,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재개에 대한 선언, 여성계 대북식량지원 요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여성1,000인 선언 등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현안에 대해 여성계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의 성인지적 관점을 드러내고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담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성명서는 본회가 기획, 콘텐츠 생산을 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6.15 남측위 여성본부, 민화협 여성위원회 여성단체들과 함께 발표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 여성통일운동 영역에서 평화여성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한해 북미비핵화협상의 교착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이 지체되고 동시에 한미군사훈련, 무기도입 증가, 국방예산 증액, 미군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등에 대해 시민평화포럼, 6.15 남측위, 민화협 등과 연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향후 한반도 평화과정과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군사주의적 흐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입장 발표를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연합 주최의 베이징+25 이행평가, 2020년 총선대응 젠더정책제안 활동에서 “여성과 무력분쟁” 영역에 대한 이행평가, “통일·평화영역”에 대한 정책제안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통일외교안보’영역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여성, 평화, 안보(WPS) 의제 공론화에 기여하였다.

2)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2019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새해맞이 남·북·해외 공동행사에 참여하여 여성부분 상봉모임에 참석하였음. 이를 위해 사전 준비회의를 제안하여 남북여성상봉모임 의제를 정하고 제안서를 작성, 북측 여성들과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었음. 2월 하노이에서 북미비핵화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남북의 사회문화교류도 저의 중단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6.15 여성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북측여성들에게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팩스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본래 평화여성회의 사업기조와 계획은 2019년 한해가 한반도의 평화과정이 긍정

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2018년과 정반대로 전개되었다. 2018년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촉진자 역할을 했던 남북관계는 2019년에는 북미관계의 중단으로 인해 지체되고 중단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체와 부침은 시민사회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여성회 사업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 남북여성교류는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해외 새해맞이 행사’에서의 남북해외 여성상봉 모임 1회만 이루어지는 데 그쳤다. 평화를 만드는여성회도 2월 금강산 남북여성 상봉모임에 참석했지만, 이후 남북여성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성평등한 한반도, 번영의 한반도를 남북여성이 함께 꿈꾸고 열어가하고자 한 구상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난 1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3) ‘여성.평화.안보’ 담론 형성과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

한반도의 평화과정이 기대한 대로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안보’ 글로벌 의제를 한반도 평화과정에 결합시킴으로써 성평등한 한반도를 구축하려는 담론적, 실천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를 여성평화안보 전문가네트워크 워크숍 6회 진행, 토크쇼 1회 진행, 여성평화안보 교육 자료집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 소개 리플렛’을 발행하였다. 6차례 진행된 워크숍에는 50명 이상이 신청하여 매회 30명 이상 참여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위 사업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는 공무원, 대학원생,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토크쇼 역시 여성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과정과 성평등한 한반도라는 담론 형성의 이니셔티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거버넌스 구축, 여성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지닐 수 있게 되었음. 여성평화안보라는 글로벌 여성평화 아젠다와 한반도 평화과정을 결합시키는 시도는 유의미한 것이었으며, 향후 담론, 정책, 실천과제 발굴 등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참가자들을 여성평화안보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전략수립과 실천 등의 과제를 지닌다.

4)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부설 여성평화연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이사회 구성, 후원이사 도입, 후원회원 확장, 연구위원 모임 정례화, ‘북한여성 이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적, 담론적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활동에 매진했다.

II.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만들기 사업

- 1) Korea Peace Treaty Now! Women Mobilizing to End War - 국제여성평화 캠페인 연대 및 국내활동 참여 (기간: 2019~2020년, 2년 연속사업)
- 2)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행사 진행
- 3)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시아협의회 활동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는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협적 체결을 촉구하는 글로벌 여성평화캠페인으로서 한국에서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의 활동전략수립과 콘텐츠 개발 등을 주도하여 여성평화운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이를 통해 본 회의 위상을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제고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여, 경기도 DMZ 포럼, 동아시아 여성평화안보 워크숍 참여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평화여성회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3월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NGO side event ‘Northeast Asian Women Lea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2월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여성상봉모임에 참석한 북측여성들의 ‘전쟁반대와 대북제재해제’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였다. 이는 중단된 남북여성교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 형성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5월 24일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가 출범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평화여성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와 함께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전개에 앞장섰고, 이후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국제적 캠페인 그룹을 통해 한국여성평화운동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제평화운동의 목소리를 한국여성평화운동으로 수렴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8월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무력갈등예방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 남북여성교류, Korea Peace Now 캠페인을 소개하고 북측의 조선평화옹호국가민족위원회(KNPC) 인사들에게 6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의 북한 여성대표단 참여 및 UNSCR 1325 DPRK NAP 수립 등의 제안을 통해 북측 여성들의 평화역량 강화, 그리고 글로벌 규범 차원에서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수립과 실천 등을 촉구함으로써 남북여성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GPPAC 동북아회의,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그룹을 통해 국내여성계의 성명서를 국제적으로 전달하여,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국제사회

에 전달하였고, 동시에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활동의 영향력이 국내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매진했다.

III. 여성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사업

갈등해결센터에서 2018년 개발한 '2030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매뉴얼'을 활용하여 청년,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여성평화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훈련과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연구모임 지속

갈등해결센터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화교육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화교육연구모임 지속을 통해 전문성과 조직력을 확장하고 있다.

IV. 조직역량 강화사업 등의 주요 사업 아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한다.

- 1)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조성사업
- 2) 회원참여사업
- 3) 평화여성회 홍보 강화 사업
- 4) 평화여성회 본회와 부설기구 제 규정 정비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조직 강화와 사업 재개

부설 여성평화연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이사회 구성, 후원이사 도입, 후원회원 확장, 연구위원 모임 정례화, '북한여성 이해(북한영화 속의 여성이야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적, 담론적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활동에 매진했다.

페이스북 활동을 통한 평화여성회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본회는 2019년 한해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평화여성회 활동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는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여성평화운동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평화여성회는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직역량 정비와 회원사업 확대의 과제

본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역할을 제고하고 아울러 평화여성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원 참여형 프로그램은 미흡하며, 성인지적 여성평화운동의 모델을 발굴하는 것 역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제한된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2020년으로 넘기게 되었다.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여성평화운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리더십을 갖춘 평화여성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3. 2019년 평화여성회 사업 총평

첫째, 독자적 사업으로 1년 동안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하였다.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과 세부적 의제’에 대한 여성시민사회, 학자, 언론인, 공무원들의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평화여성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평가의 기회가 되었고, 향후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 여성시민사회에서의 의제 제안, 대중적 교육활동을 통한 역량강화의 과제가 있다.

둘째, 국내연대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여성선언 발표, 대북 식량지원 요구,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등 요구 등 여성계 전체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평화여성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발족을 통해 여성단체간의 연대로 공동 과제인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평화여성회는 네트워크 활동의 방향 제시, 콘텐츠 제공, 현안 대응 등에서 리더십 발휘하여 제한된 조직 역량의 한계를 넘어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평화여성회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민평화포럼, 6.15 남북위, 민화협 등 연대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참여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전체 시민사회 연대활동에의 참여를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현안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견인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한 점이 부족했다.

셋째,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할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후원이사회를 구성하고 연구위원 모임을 조직하였다.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북한여성영화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북한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되는 북한여성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새롭게 전개될 남북여성교류에 필요한 북한여성 이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

넷째, 갈등해결센터는 평화교육 전문 진행자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향후 평화통일교육 전문 강사진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여성평화토크쇼에서 다자간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대화 방식인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의 전문 진행자

들을(Facilitator) 배출하여, 평화통일 영역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 속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화교육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형 평화통일 방법론을 개척하고 있다.

다섯째, 2019년은 홈페이지와 회원소식 발송,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특별히 페이스북 활동은 평화여성회 회원을 넘어서 본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활동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의 사업성과를 이어받아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론 도입, 다양한 참여자의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과정 속의 여성평화운동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한반도를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 본회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시민사회와 국제협력, 그리고 여성.평화.안보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과제가 있다.

Ⅱ. 2019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19년 사업계획 수립,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와 장소 : 2019년 1월 28일(월) 18:00~21: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성원보고 : 재적 회원 46명 중 참석 14명, 위임 14명, 총 28명
- 주요 안건 : 2018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조직 변경의 건

(2)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 김성은(이사장), 김정수(위원장/본회 상임대표),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 구원장), 여혜숙(공동대표/부설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정아(이사), 김경선(활동가), 김 태원(간사)

①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19년 10월 30일(수) 15: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여혜숙, 김경선
- 배석 : 김태원
- 안건 : 총회 날짜 결정, 총준위 절차 논의, 총회 준비 자료 분담, 2019년 1~11월 사업결과 보고, 정관 및 규정 확인

②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19년 11월 20일(수) 15:30, 책과 삶(서점 카페)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김경선
- 배석 : 김태원
- 안건 : 2020년 총회 인선위원회 구성, 2019년 사업 총평 및 본회, 부설기관 사업 평가, 2020년 사업계획 논의, 총회날짜 확정

③ 3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19년 12월 13일(금) 18:0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김경선
- 배석 : 김태원
- 안건 : 2020년 총회 인선위원회 구성 및 인선 관련 보고, 2019년 사업 총평 및 본회, 부설기관 사업평가, 2020년 사업계획안 검토, 총회 순서, 총회참석회원 명단 확인 등 총회 준비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 김성은
- 이사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존칭 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50차) 임시이사회

- 일시 : 2019년 1월 7일(월) 18:30~20:2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안김정애, 여혜숙, 한정숙
- 배석 : 안지영
- 내용 : 상임대표 인사관련의 건, 총준위 파견이사의 건

(2) 2차(제51차) 이사회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19:00~20:53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안김정애, 여혜숙
- 배석 : 안지영

- 내용 : 2018 사업/결산 보고 및 평가, 임원 인선 건 논의, 2019년 사업 기초 및 방향 검토

(3) 3차(제52차) 임시이사회

-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18: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바오밥카페
- 참석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 배석 : 안지영
- 내용 : 2018 사업/결산 보고 및 평가, 임원 인선 건 논의, 2019년 사업 기초 및 방향 검토

(4) 4차(제53차) 임시 이사회 (운영위원회와 통합 개최함)

- 일시 : 2019년 4월 4일(목) 11:3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
- 참석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경선, 김은희
- 안건 : 3월 사업/회계보고, 4,5월 사업계획 검토, 4.27 DMZ 평화인간 띠잇기, 5.24 세계여성군축행동의 날 기념 심포지움 논의, 여가부 지원 사업선정, 부설한국여성평화연구원 운영규정 승인

(5) 5차(제54차) 이사회 (운영위원회와 통합 개최함)

-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24일(수) 16:00, 세종문화회관 지하 커피숍
- 참석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박현선, 여혜숙
- 배석 : 김경선
- 안건 : 2018 상반기 사업/회계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김정수 (상임대표)
 - 위 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3) 회의

(1) 제1차

- 일시와 장소 : 2019년 2월 7일(월) 11: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은희
- 안건 : 2019년 총회 총준위, 총회 평가, 2,3월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및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side-event, 평창평화포럼 참석 일정공유, 사무국, 위원회, 부설 기구 사업보고, 운영 1/4분기 사업계획 검토

(2) 제2차

- 일시와 장소 : 2019년 3월 7일(목) 12: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은희
- 안건 : 1,2월 사업/회계보고, 3,4월 사업계획 검토, 여가부 사업계획 보고, 통교협프로젝트 논의,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공유, 총회 회의록 검토,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운영규정 검토, 활동가 총원

(3) 제3차(임시 이사회와 통합 개최함)

- 일시와 장소 : 2019년 4월 4일(목) 11:30,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
- 참석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은희, 김경선
- 안건 : 3월 사업/회계보고, 4,5월 사업계획 검토, 4.27 DMZ 평화인간 띠잇기, 5.24 세계여성군축행동의 날 기념 심포지움 논의, 여가부 지원 사업선정, 부설한국여성평화연구원 운영규정 승인

(4) 제4차

- 일시와 장소 : 2019년 6월 14일(금) 16: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경선
- 안건 : 4,5월 사업/회계보고, 6,7월 사업계획 검토, 7.27 정전협정 체결 66주년 성명서 연대 및 북한에 남북여성공동성명 제안, 여가부 지원사업 여성평화토크쇼 사업 계획 공유,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실무자 배치관련 논의

(5) 제5차 (제4차 이사회와 통합 개최함)

-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24일(수) 16:00, 세종문화회관 지하 커피숍
- 참석 : 김성은,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박현선, 여혜숙
- 배석 : 김경선
- 안건 : 2018 상반기 사업/회계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6) 제6차

- 일시와 장소 : 2019년 9월 11일(수) 11:0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경선, 김태원
- 안건 : 8월 사업/회계보고, 9,10월 사업계획 검토, 여성가족부 교육책자 발간사업,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요영화제 및 연구원 워크숍, 운영위원회 결성 관련 논의

(7) 제7차 (1차 총준위와 통합 개최함)

- 일시와 장소 : 2019년 10월 30일(목) 15:0,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
- 배석 : 김경선, 김태원
- 안건 : 9,10월 사업/회계보고, 11,12월 사업계획 검토,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경선(활동가)
-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 4) 일시 : 2/11, 2/18, 2/25, 3/4, 3/18, 3/25, 4/1, 4/8, 4/15, 4/22, 4/29, 5/7, 5/13, 5/20, 5/27, 6/4, 6/10, 6/17, 6/27, 7/1, 7/9, 7/15, 7/29, 8/5, 8/19, 8/26, 9/2, 9/17, 9/24, 10/10, 10.14, 10/21, 11/7, 11/18, 12/3, 12/16, 12/24

2. 법인.행정

2-1. 감사

- 1) 역할 :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 사업감사 (박유희 전 이사), 회계감사 (윤수경 전 공동대표)
- 3)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2-2. 법인, 행정, 사무

-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통일부 법인 업무

- (1) 평화여성회 2018년도 법인 현황 제출(일시 : 3월 20일)
- (2) 통일부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관련 자료 제출(일시 : 3월 29일)
- (3) 2018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홈페이지 공지(일시 : 3월 29일)
- (4) 2017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홈페이지 공지(일시 : 5월 13일)

3) 법인 세무 업무

- (1)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변경 (일시 : 2월 13일)
- (2) 국세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신고 (일시 : 3월 25일)
- (3)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 제출 (일시 : 3월 20일)
 - 사유 : 김지호, 신민시, 안지영 인위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 중 1인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 요청받아 제출함.
- (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재가입신고 (일시 : 2월 25일)
 - 사유 : 1월 31일로 사업장 상실 신고 되어 있어 재가입 후 신규 가입
- (5) 통일교육협의회 대표자 변경 요청 서류 제출 (일시 : 3월 29일)
- (6) 2017-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형성철)/ (일시 : 5월 9일)
- (7) 2017년 국세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신고 (일시 : 5월 13일)
- (8)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신고 (일시 : 7월 3일)
- (9) 김은희, 김경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일시 : 7월 3일)
- (10) 안지영 2018년 보수총액 수정신고 (일시 : 7월 22일)
- (11) 안지영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소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 (일시 : 8월 26일)

(12) 김경선, 김은희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신청서 제출(일시 : 8월 28일)

(13) 주민세 납부 (일시 : 8월 30일)

(1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제출 (일시 : 11월 11일)

4) 행정 업무

(1) 사무실 컴퓨터 수리와 업로드 진행

(2) 오즈메일러 문자 충전 결제(5,128통)/ (일시 : 2월 20일)

(3) 오즈메일러 사용분 결제(6개월)/ (일시 : 3월 19일)

- 기간 : 2019.3.19. ~ 2019.9.19.

(4) LG 유플러스 인터넷 및 전화 재 약정(3년)/ (일시 : 4월 24일)

(5) 신도프라자 프린터 복합기 계약 (일시 : 6월 3일)

- 기간 : 2019.6.3. ~ 2022.6.2.

(6) 김태원간사 근로계약서 작성 (일시 : 7월 4일)

(7) 오즈메일러 문자 충전 결제(5,128통)/ (일시 : 8월 9일)

(8)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대출 자료관련 서약서 제출 (일시 : 8월 30일)

(9) 오즈메일러 사용분 결제(12개월)/ (일시 : 9월 16일)

- 기간 : 2019.9.19. ~ 2020.9.19.

(10) Dropbox 결재(1년)

- 기간 : 2019년 11월 7일 ~ 2020년 11월 6일

(11) 사무실 컴퓨터 하드(HDD)교체 (일시 : 11월 27일)

【2】 평화·통일 사업

<2019년 사업 계획안>

1. 성인지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평화 만들기 사업

1-1.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관련 법, 제도,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다.

2019년 한 해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평화여성회는 정세와 현안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논평하고, 필요시 성명서 등 입장문을 발표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성인지적 관점의 평화과정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 1)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2) 통일, 외교, 안보 법, 제도, 정책 제안
- 3)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1-1.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관련 법, 제도,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다.

1)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성명과 논평 내용은 부록 참조

- (1) 2019년 1월 28일(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
- (2) 2019년 2월 25일(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 (3) 2019년 2월 28일(목)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 (4) 2019년 3월 18일(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 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단체 호소문
- (5) 2019년 4월 12일(금) 한미정상회담 이후 6.15남측위원회 논평
- (6) 2019년 4월 30일(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발족 선언
- (7) 2019년 5월 16일(목)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8) 2019년 5월 24일(금)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Campaign 발족 기념 성명

- (9) 2019년 5월 31일(금)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기자회견 공동발표
- (10) 2019년 6월 27일 (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서한 전달 기자회견
- (11) 2019년 7월 1일(월)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 (12) 2019년 7월 18일(목)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 기자회견
- (13) 2019년 7월 25일(목) ‘과거사 부정, 경제보복, 한일 갈등조장 아베정권 규탄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14) 2019년 8월 7일(수) 미국 정부는 한국인 방북자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 철회하라
- (15) 2019년 8월 12일(월) 적대의 상징 한미연합군사연습, 이대로 지속할 셈인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 (16) 2019년 9월 20일(금)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 (17) 2019년 10월 7일(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
- (18) 2019년 10월 28일(월)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기자회견
- (19) 2019년 11월 14일(목)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
- (20) 2019년 11월 29일(금) 문희상 국회의장은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 사죄가 먼저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한다!
- (21) 2019년 12월 16일(월) 미국의 과도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여성들은 분노한다.
- (22) 2019년 12월 17일(화) 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 (23) 2019년 12월 17일(화)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 짓지

말라!

2) 통일, 외교, 안보 법, 제도, 정책 제안

(1) 베이징행동강령+25 이행점검

□ **개요:** 2020년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에서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Plan)’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본회는 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서, 여성연합이 5년마다 개최하는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 점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베이징행동강령 중 [E.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NGO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참여하였다 (집필: 김정수 상임대표).

☞ **이행점검프로젝트 진행 보고는 여성단체연대활동 부분 참조.**

베이징+25주년 기념 베이징행동강령 (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 주요 분야 이행 점검 시민사회 보고서 (2019년 7월)

● 베이징행동강령 중 [E 여성과 무력갈등] 영역

- 모든 영역의 분쟁 관련 의사결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늘릴 것
-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보호할 것
- 군비 지출을 줄일 것
- 비폭력적 분쟁 해결을 옹호·지향할 것
- 여성들의 평화건설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것
- 이주 여성과 식민 치하의 여성들에 대해 특별 지원할 것

● 여성과 무력갈등

1. 현황 개괄

- 2017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음. 그러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비핵화 협상을 통해 적대적인 북미 관계가 대화의 관 계로 나아가는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군사적 갈등과 군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주민들의 인간안보, 특별히 여성안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정부는 2014년 5월에 1기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5월 2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 (9개 부처 참여).

2. 정부의 이행 성과

- 2017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으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되었음. 이는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의 제도화에 관한 진

전이라고 할 수 있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통일부는 고위공무원단을 23.3% 배치함(2018). 또한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부 위원회 내 여성비율 40% 실현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음.

- 외교부는 분쟁 하 성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UNFPA,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로힝야 난민(100만 달러)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성폭력 생존자(1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2018년부터 민관협력사업 내 ‘분쟁 하 성폭력’분야를 신설하여 난민여성 지원사업을 3건 진행하고 있음.
- 국방부는 2018년 부처 내 양성평등위원회, 20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 부서를 신설 및 운영하고 있음. 또한 유엔평화유지군(PKO)을 대상으로 파병 전후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화유지군 여성비율은 2018년 기준 16.6%를 차지함.

3. 정부의 이행에 관한 한계

- 1325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체계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간자문단이 참여하는 이행 보고회는 연 2회만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여성, 평화와 안보관련 정책 이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성인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음.
- 비핵화협상, 남북협상 등 주요 협상 과정에서 여성참여가 거의 없으며,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모델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이행 한계에 대한 구조적 원인, 장애 요인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를 총괄하는 기구가 부재하여,
 - 1) 국가행동계획 이행의 구속력에 한계가 있고,
 - 2) 각 부처의 성주류화 전략 이외에 ‘여성, 평화, 안보’로 특화된 의제나 사업이 미비함.
-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이 부족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함. 따라서 여성·평화 분야의 전문화된 역량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5. 과제와 제언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 1) 범부처를 아우르는 총괄조정 기구설치,
 - 2) 관련 예산 배정을 법적으로 의무화
- 남북협상과 비핵화협상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평화전문가, 여성협상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Women and Facilitation/Gender and Mediation) 및 의미 있는 여성참여 모델 발굴
-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남북여성교류 및 협력의 정례화,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개입을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비전 수립

(2) 2020년 총선 대응활동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중 “성평등한 평화체제 구축” 분야 정책 제안

□ 개요 : 2020년 4월 총선을 맞이하여 본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서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제안 작업에 참여하여 “성평등한 평화체제” 분야를 집필하였다. (집필 참여: 김정수 상임대표)

☞ 2020년 총선 정책과제 발굴 과정보고는 여성단체연합 연대활동 부분 참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구축

1.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의 제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 남북여성교류 과정에서 남과 북의 여성들은 화해와 협력의 주체로 나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 전쟁방지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분단으로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온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하면서 남북의 통합을 준비하고 통일된 미래를 준비하는 상호학습의 경험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여성교류가 축소되는 등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고, 여성들의 고유의 관심사, 젠더 관점의 공동의제 발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2018년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평화과정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여성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한 한반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정책과제

- 통일부 정책의 성주류화
 - 양성평등담당관실 신설 및 통일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배정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젠더분과 설치, 교류협력 각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기구에 여성들의 참여가 비중 있게 보장되도록 제도화
-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
 - 남북여성교류협력을 총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 설치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제도화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인지 예산 배정 의무화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과 개발협력에 성인지 관점 도입의 제도화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기금에 남북여성 경제협력 기금 신설
 - 1325 제3기 국가행동계획, ‘구호와 회복(Relief&Recovery)’ 영역에 북한여성 개발협력, 혹은 남북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포함

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과 한국전쟁 종전,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화번영의 한반도는 성평등한 한반도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은 남북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역량 강화, 정치·경제 등 영역에서의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분단 체제를 유지시켜온 힘의 논리에 기반한 정치·군사적 차원의 안보, 군사동맹에 기초한 안보 개념을 공동안보, 인간안보, 여성안보 개념으로 전환함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 2위의 무기수입국이며, 2019~2023 중기국방계획 기간동안 약 270조의 방위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현행의 주한미군 1년 방위비 분담금 또한 여성가족부 1년 예산에 버금갈 정도인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정부의 연간 통일외교 예산에 상응할 정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한국정부의 중기국방계획이나 F-35A 전투기와 같은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군사훈련 등은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북한의 비판과 반발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 분단 체제는 군사 안보와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를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징병제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대한 이등 시민화, 즉 여성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재생산해왔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분단 체제를 유지해온 군사 안보 개념의 해체 및 인간안보, 여성안보, 공동안보 개념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억압해 온 징병제 역시 평화 체제에 걸맞게 전환되어야 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 여성평화 담당관 신설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협정, 성평등한 한반도 의제 논의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통일부, 외교부에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처 신설 및 여성가족부에 남북여성협력정책 담당과 부처 신설
- 국방예산 증가에 대한 상한선 제정(물가 인상 대비 혹은 예산안 인상 대비 등)
- 한반도 평화체제와 성평등 민주주의에 부합한 징병제 개선 공론화

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 제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정부는 2014년 5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1기(2014~2017)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2기(2018~2020년) 국가행동계획은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까지 9개의 부처와 기관에서 참여하여 이행하고 있다. 2기 국가행동계획의 취지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확대를 지향하며,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방, 평화, 외교 등 주요 국가 정책 영역에서 여성이 주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1325 국가행동계획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 통일, 안보, 외교 분야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성인지적 의제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남북여성의 실질적 삶의 조건 개선하고 성평등한 한반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 2017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에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1325 국가행동 계획 이행 제도화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정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 자문단이 참여하는 년 2회 이행 보고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의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현실이다.

2) 정책과제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NAP)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 의무화 및 국회보고 의무화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거버넌스 제도화
- 1325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수립 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북여성교류'를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세부목표, 행동계획, 평가지표 수립 등 1325 국가행동계획 차원에서 진행
- 남북협상 대표단에 여성대표성(30% 이상) 의무화 - 3기 1325 국가행동계획 '참여' 영역 행동계획 신설²⁾
- 한반도 평화협정 의제에 사회, 문화 영역 신설로 여성과 시민사회 등 다자적 참여 기반 확보

3)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 연대활동 부분 참고

<2019년 사업계획안>

1-2.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평화여성회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재개되는 남북여성교류에서 의제 발굴과 전략 제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남북여성이 함께 만들어갈 성평등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수립해 나간다.

- 1) 2019 새해맞이 공동행사 및 여성상봉 모임 참가
- 2) 3.1절, 4.27, 6.15, 8.15, 10.4 남북공동행사 참가
- 3)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및 남북여성협력사업 제안 등

2) 2기 행동계획은 “남북한 협상 및 6자 회담 등 관련 정부대표단 중 여성참여 확대 및 실무진행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으로 되어 있음

1-2.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변영과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1) 2019 남.북.해외 새해맞이 공동행사 및 남북여성상봉 모임 참가

(1) 일시와 장소 : 2019년 2월 12일(화)~13일(수), 금강산 (1박 2일)

(2) 참석 :

- 여성본부 : 김정수(상임대표), 장미란(회원, YWCA 평화통일위원장)
- 교육본부 : 김귀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민교협 공동의장)

(3) 남북해외 여성연대모임(부문별 상봉행사)

- 장소 : 온정각 수정봉 식당

- 참석 :

- ① 북측: 5명(김명순 여맹 부위원장, 김춘순 조대위 담당, 박영희 민화협 여성부 부장, 최춘영, 리금경 여맹 위원)
- ② 해외측: 3명(김영희 중국 615해외위원회 사무국, 리혜순 재일여맹 부위원장, 김영녀 중국 재중여성협회 회장)
- ③ 남측: 8명 (부산여성회 장선화 상임대표, 수원여성회 조영숙 상임대표,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상 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민족화해분과위원장 이선중 수녀, 한국 YWCA 연합회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

(4) 여성연대모임 논의 내용

- ① 남측 제안 안건 1. 남북해외 여성행사
→ 올해 안에 남북해외 여성행사를 진행하도록 논의 해 가자.
- ② 남측 제안 안건 2.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 토론회 개최 및 공동행동에 대한 제안
→ 3.1 공동성명 발표하고, 다른 내용은 차차로 협의 해 나간다.
- ③ 북측의 요청 : 대북제재 해제 및 전략자산 동원하는 군사훈련 반대 활동을 남측 여성들이 힘써 줄 것을 요청하다.

(5) 후속작업 :

- ① 2019.3.1.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 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워싱턴 포스트지 광고 게재
- ② 위 광고를 위해 본회 후원 참여

(6) 홍보활동 : 통일뉴스 기고 (2019.2.18)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이 땅에 전쟁

이 벌어진다면...”<참가기>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 김정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851>

(7) 관련 준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일(금) 12:00, 고(故) 김복동님 빈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참석 : 김정수(상임대표), 최진미(6.15 여성본부 상임대표), 백미순(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선중 (천주교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위원장), 장미란(한국 YWCA 평화 통일위원장)
- 내용 : 남북해외 여성연대모임 논의 안건 결정 등

(8) 기타 :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및 남북여성협력사업 제안서” 전달 (북측 박영희 민화협 여성부 부장 수신)

2) 북한 식량지원 촉구 성명 발표

- 일시 : 2019년 5월 16일
- 제목 :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인도주의적 지원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라!
- 언론소개 : 한겨레신문, 통일뉴스 등

☞ 성명서 모음 참고

3) 6.15 여성본부 통한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제안

☞ 6.15 남측위 여성본부 활동 부분 참고

4) 기타

(1) 남북여성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주제 : 남북여성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방안
- 일시와 장소 : 2019년 2월 22일(금) 14:30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참석자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귀옥 한성대 교수, 여혜숙 민주평통 여성위원장, 김숙임 조각보 이사장, 채명숙 여성가족부 국제협력실 서기관, 조영주 여정연 부연구위원, 등

(2)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방안’ 자문회의

- 주제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어젠다 검토
- 일시와 장소 : 2019년 10월 일, 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이해경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연구위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 연구진 :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등

(3)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IEP 협동연구 자문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 개요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참석: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서면자문)

<2019년 사업계획안>

1-3. '여성.평화.안보' 담론형성과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정에 '여가부 1325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2018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여성.평화.안보 교육매뉴얼'을 활용하여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평화역량을 형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1) (여성가족부)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 활동
- 2) '여성.평화.안보' 역량강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진행

1-3. '여성.평화.안보' 담론형성과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

1)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2019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제목 : 여성, 평화, 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9년 4월 1일~11월 30일
- 사업비 : 여가부 지원금 18,000,000원 자부담 1,800,000원

(2) 사업 목적

- ① 여성.평화.안보(WPS) 글로벌 아젠다를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용하여 성인지적 한반도 평화체제 패러다임을 모색함

- ② ‘성평등한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의제를 발굴, 이를 정책화, 제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 이를 위한 전문가네트워크를 운영함
- ③ 성평등한 한반도 구상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산을 위해 교육자료 제작과 토 크쇼 등 대중적 활동을 전개함

(3) 사업진행 과정

- ①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공모사업 설명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2019년 1월 21일(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참석 : 김정수

- ② 사업선정 단체 워크숍 사업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일시와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15시 30분, 양성평등교육 진흥원
 - 참석 : 김정수
 - 내용:
 - o 전문가 컨설팅과 질의, 응답 등
 - o 업무지원포탈시스템(단체협력네트워크) 이용 방법
 - o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업등록
 - o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 ③ e-나라장터 업무와 행정, 회계 처리 교육
 - 일시와 장소 : 2019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시 30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참석 : 김은희

- ④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중간 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 등
 - 일시와 장소 :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9:30분, 평화여성회 사무실
 - 여가부, 양평원 및 컨설턴트 3인 방문
 - 참석 : 김정수, 김경선
 - 중간보고서 제출 : 2019년 7월 26일(금) 제출

- 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최종평가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2019년 11월 6일(수) 오후 1시~5시, 양성평등진흥원
 - 참석 : 김경선

- ⑥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정산 보고 및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집행마감 처리 : 2019년 11월 29일(금)
 - 정산보고서 제출 : 2019년 11월 29일(금)

-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2019년 12월 6일(금)

(4) 세부 사업

▣ 사업 1 :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네트워킹 워크숍

	일시	주제 및 컨셉	
1 차	5월 7일(화) 18:30	Women, Peace, Security 글로벌 의제 및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한반도 평화과정: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회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발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여성평화포럼 공동대표, 계명대학교 교수)
2 차	5월 21일(화) 18:30	성인지적 한반도 평화 아젠다(s) - 한반도 평화과정,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재구성과 의미 있는 여성 참여 모델 만들기	
		사회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제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조영미 (2020 Women-led "Korea Peace Now" Global Campaign 여성평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유경 (WILPF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컨설턴트)
3 차	6월 4일(화) 18:30	분단폭력과 젠더폭력: 정의, 범주, 내용 - 분단, 군사주의, 여성혐오, #미투의 연관성 - 평화문화 형성의 방법과 과제 찾기	
		사회	한정숙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제	김엘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 차	6월 18일(화) 18:30	북한사회의 변화: 시장화와 북한여성의 삶 - 북한여성의 일상 들여보기 - 남북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권리향상의 과제	
		사회	장미란 (한국 YWCA 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발제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윤보영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원)
		토론	김화순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원 연구교수)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국장)
5 차	6월 25일(화) 18:30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여성교류	

		-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와 협력 과제	
		사회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발제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이영훈 (SK경제경영연구소 상임연구원)
6차	7월 9일(화) 18:30	여성평화교육 - 기존의 통일교육, 평화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 젠더와 평화교육, 방법론과 내용(s)	
		사회	여혜숙 (민주평통 여성상임위원회 위원장)
		발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토론	김정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이권명희 (인권, 평화감수성 훈련 전문강사)

① 워크숍 진행

- 회차 : 총 6회
- 신청자 : 57명
- 평균 참석자 : 30명 내외
- 홍보 : 웹자보 제작
 - a. 홈페이지
 - b. 페이스북
 - c.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57>
 - d.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92139.html
 - e. 평화운동 네트워크 홍보

② 1차 기획 회의

- 일시와 장소 : 4월 22일(월) 오후 5시,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자 : 김희은, 이권명희, 박인혜, 김정수, 여혜숙
- 내용 :
 - a. 2019년 여가부 지원, 본회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요 설명 - 관련 내용 확인
 - b. 6차 워크숍 구성, 내용, 발제자, 토론자 관련 논의 - 전체적 흐름과 발제자, 토론자의 적합성 등

③ 2차 기획 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1일(월) 저녁 6시,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자 : 권은비, 김엘림, 정다운, 김정수
- 내용 :
 - a. 2019년 여가부 지원, 본회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5차 워크샵까지 진행하였음)
 - b. 5차까지의 워크샵에 대한 이해도 확인 - 상~중 사이
 - c. 본 워크샵이 여성평화운동 분야에서 가지는 의미
 - d. 여성평화안보 워크샵의 주제와 2030 젊은 세대와의 연결 방안 등

④ 3차 기획 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10일(수), 여성미래센터 1층 바오밥나무 카페
- 참석자 : 윤보영, 윤해숙, 차승주, 김정수
- 내용
 - a. 2019년 여가부 지원, 본회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음, 지속성 있는 후속활동이 기대됨
 - b. 북한사회의 변화 : 시장화와 북한 여성의 삶(4차 워크샵) 관련 심화 토론
 - c. 여성의 평화 감수성, 통일 감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함
 - d. 여성평화안보 영역에서의 논의의 확산을 위하여, 관료-연구자-활동가 등 1.5 트랙 차원에서 비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 바람 등

■ 사업 2 : 여성평화토크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여성·평화 토크쇼
“2030년 통일 한국의 모습: 여성과 청년이 기대하는 것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평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2030년 가상(假像)의 통일 한국, 그 명과 암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 일시 : 2019년 8월 9일(금) 오후 6시 30분~8시 30분
- 장소 :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지하철1호선 시청역 하자)
- 진행 : 박현선 이화여대 겸임교수
- 순서
 - 등록 및 인사 나눔 (오후 6:30~6:50)

- 첫째 : 패널 토크쇼 (6:50~7:30)
 - (1) 2030년의 통일 한국: 명과 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 청년들이 바라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전지예, 서울청년겨레하나 회원)
 - (3)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둘째 : 퍼실리테이션 토크쇼 (7:30~8:00)
 - 그룹 퍼실리테이션으로 2030년 통일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 모아보기
 - 셋째 : 마무리 토크쇼 (8:00~8:30)
 - 패널들의 답변과 전체 토크 이어가기
- 주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서울청년겨레하나
 - 후원 : 여성가족부, 여성신문
 - 참가 신청 및 문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

① 준비 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5일(금) 오후 4시,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자 : 박현선, 김정수
- 내용
 - a. 2019년 여가부 지원, 본회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주제 전반을 다루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발제자 토론자로 섭외하여, 참가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b. 여성평화토크쇼 관련 - 여성평화토크쇼는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는 것이 필요함.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서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토크쇼가 되기 바람
 - c. 패널 발제자 추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 d. 퍼실리테이션 진행 관련

② 여성평화토크쇼 웹자보 제작 및 홍보 진행

- a. 홈페이지, 평화여성회 facebook, 카카오톡 연락처, 텔레그램 연락처
- b. 평화여성회 이사회, 여성연합 이사회, 6.15 남측위원회, 6.15 여성본부, 민화협 집행위, 민화협 여성위, 시민평화포럼 운영위, (오즈메일러) 회원, 연구위원, 여성평화안보위크샵 및 평화통일교육진행자 훈련 프로그램 참석자,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③ 여성평화토크쇼 퍼실리테이터 사전회의

- 일시와 장소 : 8월 5일(월) 오후 5시, 여성미래센터 1층 바오밥카페

- 참석자 : 김정수, 여혜숙, 김경선, 손서정, 박인혜, 김지선, 김정아
- 내용 :
 - a. 여성평화 토크쇼 퍼실리테이션 토론 규정관련 의견 수렴
 - b. 여성평화 토크쇼 퍼실리테이터 역할에 대한 의견 토론 및 확정
 - c. 모듈별 토론 순서 및 시간 배정, 질문 확정

④ 여성평화토크쇼 진행

- 일시와 장소 : 8월 9일(금)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 신청자 : 41명
- 평균 참석자 : 48명 내외

■ 사업 3.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교육자료집 발간

- 목적 : 여성평화안보 글로벌 의제와 한반도 평화과정, 성평등한 한반도 담론을 결합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자료집을 발간한다.
- 대상 : 여성과 분단, 여성과 평화, 여성과 통일 등의 주제에 대해 관심 가지고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 여성단체 활동가 등

① 진행 일정

1. 원고(초고) 마감 : 2019년 9월 30일(월)
2. 원고(수정) 마감 : 2019년 10월 14일(월)
3. 원고편집(1차) 마감 : 2019년 10월 31일(목)
4. 원고편집(최종) 마감 : 2019년 11월 8일(금)
5. 여성가족부 제출 : 2019년 12월 6일(금)
6. 발행부수 : 200부

② 자료집 순서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교육자료집(2019)**

발간사

1. 목차

- (1) 여성이 보는 분단과 통일, 그리고 평화 - 김귀옥
- (2)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와 국가행동계획 - 조영주
- (3) 한반도 평화과정과 여성들의 참여 - 조영미
- (4) 분단과 젠더, 혐오정치학 - 김엘리

(5) 남북여성교류의 성과와 과제 - 김정수

(6) 우리가 만드는 평화, 이렇게 온다?!

내 삶을 통해 본 여성·평화·통일·교육 - 손서정

2. 부록

(1)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주는 시사점 - 조영숙

(2) 북한사회의 변화: 시장화와 여성의 삶 - 박현선

(3)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의 문제점 - 유영재

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소개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공모사업 진행 평가와 향후 과제

- (1) '여성·평화·안보' 글로벌 의제를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용하여 성평등한 한반도를 구상한다는 기획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을 구성하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통해 기획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 (2) 애초에 30명 정도의 참여자를 예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55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6회 진행된 워크샵에 평균 30명 이상 참여하였다. 또한 여성·평화토크쇼(2030년 통일 한국의 모습, 여성과 청년이 기대하는 것은?)에도 55명 이상 참여하였다. 전체적으로 계획과 기대 이상으로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여성·평화토크쇼는 특별히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행방식(퍼실리테이션)을 채택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전문진행자들의 진행을 통해 참여적 방식의 토크쇼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향후 이러한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 영역의 참여적 토크쇼의 모델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6회 워크샵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와 성평등한 한반도 교육자료집'과 1325 국가행동계획 설명 리플릿을 발행함으로써 향후 대중적 교육 자료를 통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5) 본 사업을 통해 평화여성회가 여성시민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6) 다만, 6회 워크샵 구성에서 발제 2인, 토론 2인으로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포괄하여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심층적 토론을 진행하는 데 한계와 아쉬움을 남겼다. 향후 워크샵이나 토론회를 기획하는 데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2) 여성가족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 자문단 활동

(1) 이행점검회의 (1차) - 2018년도 하반기까지 이행점검 관련 회의

(2) 안보리결의 1325 제2기 국가행동계획 제2차 이행점검 회의 및 이행활성화 워크샵

-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내용 :

①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활성화 방안’ 워크샵(발제: 김정수)

② 제2기 국가행동계획 제2차 이행점검 회의 등

(3) 여성가족부 2020년 베이징+25, 1325 20주년 기념사업 자문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11월 15일 오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 참석 :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장필화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 여성가족부 제10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와 장소: 2019년 11월 20일(수)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

- 내용: (1) 제10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2) 주요업무 현황보고 침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등

- 참석: 김정수 상임대표 (혁신.적극행정분과위원회)

(5) 여가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특강

- 일시와 장소: 2019년 12월 19일(목) 12:00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 주제: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이해하기’

- 강사: 김정수 상임대표

3)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 활동

(1) 개요: 외교부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2기 국가행동 계획’의 사업의 일환으로 분쟁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하여 2018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회의 김정수 상임대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2) 자문위원회의 및 워크샵

① 자문위원회의 - 2019/1/17, 3/25, 7/26 등

② 자문위원 워크샵

- 일시와 장소 : 2019년 12월 8일(수) 09:30~13:00 포시즌스호텔
- 주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2020년 추진계획 논의
분쟁 하 성폭력 대응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및 2차 국제회의 준비
- 참석: 자문단 및 정부측 인사 27명 (주재: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 내용
 - a. 개발협력.인도적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및 2020 국제회의 개최준비
 - b. 로힝야 난민 지원사업 현황,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지원사업(IOM) 추진 현황, 2020년도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계획
 - c. KOICA 민관협력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d. 2020년도 국제기구 사업추진 계획 등

(3) 자문위원활동

- ① 2019년 5월 - 2018년 완료사업에 대한 자문위원 서면자문 참여
- ② 2019년 6월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GBV 분야 현황 공유회 참여
- ③ 2019년 7월 - 2019 여성과함께하는평화 국제회의(1차) 참석 등

<2019년 사업 계획안>

1-4.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여성평화 전문가 집단의 담론형성 활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체제형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남성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국제관계에 대한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 보고 참조

<2019년 사업 계획안>

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만들기 사업

2-1. Korea Peace Treaty Now! Women Mobilizing to End War - 국제여성평화캠페인 연대 및 국내활동 참여 (기간: 2019~2020년, 2년 연속사업)

2-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행사 진행

2-3.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시아협의체 활동

- 제5차 회의 : 2019년 8월 울란바타르(몽골) 예정

2-1. Korea Peace Treaty Now! Women Mobilizing to End War - 국제여성평화 캠페인 연대 및 국내활동 참여 (기간: 2019~2020년, 2년 연속사업)

※ 참고 : 2-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심포지엄 사업계획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Korea Peace Now 한국 캠페인 공식런칭행사”로 진행함

- 2020년까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국제캠페인은 한반도의 종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Women Cross DMZ, Nobel Women’s Initiative),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과 함께 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음
- 국내캠페인은 성평등한 한반도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해 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공공외교, 평화의제 개발,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2019년 5월 24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공식 런칭함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1) 운영위원회

(1)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제1차 운영위원 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화두(경복궁 부근 찻집)
- 참석 : 평화여성회 김정수, 여성연합 백미순,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조영미 집행위원장
- 안건 : 회계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 (글로벌 캠페인 등)

(2)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3)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여성미래센터 1층 바오밥나무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백미순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미 집행위원장(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총 3명
- 안건
 - ① 7.27 남북 여성 공동성명서 제안
 - ② 경기도 주최 ‘2019 DMZ 포럼: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으로’ 여성 & 평화세션 기획
 - ③ 경기연구원 기획, 경기평화협력국(경기평화부지사) 주최하는 2019 DMZ 포럼 중 ‘여성과 평화’세션(가제)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함께 기획, 기초발제자로 글로리아 스타이넘 추천, 여성평화세션에 해외 참석자와 경기여성단체연

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포함 하여 기획, 제안하기로 함

2) 국제 활동

(1)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NGO-Side Event와 관련 활동

※ 본회 김정수 상임대표 참석

① 준비 활동

a.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행동 방미단 준비모임

- 일시와 장소 : 2019년 2월 15일(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전혜숙) 사무실
- 내용 : 방미단 소개, 워싱턴 방문일정 소개, 논의 등
- 참석 : 국회의원 권미혁, 이재정, 제윤경, 한국YWCA 한미미 국제협력위원장, 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조영미 집행위원장 김정수 상임대표 등

b.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행동 방미단 준비모임

- 일시와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내용 : 외교부 브리핑 (2.27 북미 정상회담 의미와 과제), 여가부 브리핑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의 내용과 현재적 의미), 방미단 역할 분담과 핵심사항 논의 등
- 참석 : 국회의원 권미혁, 이재정, 제윤경, 한국YWCA 한미미 국제협력위원장, 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조영미 집행위원장 김정수 상임대표 등

c. 제63차 CSW 기간 중 NGO Side Event 준비 화상 회의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후 10시
- 참여 : 김정수 상임대표, 조영미 집행위원장, 리즈 번스타인 노벨위민스이 니셔티브 사무총장, 코즈에 아키바야시 도지사대 교수, 수지 김 러거스대 교수
- 내용 : CSW NGO-side event 각 발표내용 공유 및 운영 논의 등

② 63차 CSW NGO-Side Event "Northeast Asian Women Lea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14:30~16:00
- 장소 : 뉴욕 4 west 43rd street Social Hall
- 프로그램
 - a. "Korea Peace Now: Global Campaig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코즈에 아키바야시(WILPF International 회장, 일본 도지샤대학 교수)
- b. "Korean War and the International Women's Peace Movement"
Suzi Kim (Women Cross DMZ, Reutger College 교수)
- c. "What do women want from a Korean Peace Agreement?"
Kim Jeongsoo (Women Making Peace)
- 참석 : 약 200여명, 한국여성단체연합 CSW 참가단, 뉴욕 한인여성, 국제여성 평화운동, 평화교육 전문가, UN asia pacific division관계자, CSW 해외 참가자 등
- 비고 : 본 행사는 Korea Peace Now 캠페인 뉴욕 launching 행사로 열림

③ CSW 기간 중 행사 및 일정

- a. 2019년 3월 12일(화) 8:30, 유엔한국대표부, UNDP 공동주최 행사 참석
 - 제목 : GBV and SDG Series: The Gendered Continuum of Violence in Crisis-affected Settings
- b. 2019년 3월 12일(화) 12:00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오찬
 - 대상 : CSW 참석 한국여성단체인사들, 유엔한국대표부 직원, 외교부, 여가부 직원 등 40여명
- c. 2019년 3월 12일(화) 19:00 뉴욕한인가정법률상담소 김광희 창립자 초청 저녁식사
 - 대상 : 여성신문 김효선 사장, 여성단체연합 참가자 외
- d. 2019년 3월 14일(목) 10:00 Korea Peace Now 캠페인 소개 기자회견 참석
 - 유엔본부 프레스센터
- e. Georgetown Institute for Women, Peace, Security 멜라니 버비어 소장 면담
 - 일시와 장소 : 2019년 3월 14일(목) 14:00 맨해튼의 카페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조영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내용:
 - ㄱ.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War 캠페인 소개
 - 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북미 신뢰조성 방안
 - ㄷ.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남-북-미 여성 협력 방안 모색 등
- f. WomenCrossDMZ 모금행사 참석 (2019년 3월 14일(목) 19:00 - 맨해튼 번가
 - 미화 75.00 달러 기부
- g. Sonja Bachmann 대화 - 남북여성 초청 (각 5명) "Women and

Mediation”

프로그램 개최 의사 (장소: 몽골 울란바타르)

* 참고: 2018년 5월 24일 북경에서 열린 남-북 여성초청 행사 주도함

* Sonja Bachmann - Team Leader Northeast Asia and the Pacific Asia and the Pacific Division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③ 언론 기고

- 여성신문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58>

④ 여성평화네트워크 평가모임

- 일시와 장소 : 2019년 3월 29일(금) 중식당 하오하오

- 참석 : 김정수, 백미순, 한미미, 최진미, 조영미, 정은아

- 내용 : 워싱턴 의원단-시민단체 방문행사, 뉴욕 CSW side event 행사, 캐나다 캠페인 행사 등 평가, 향후 일정 등

⑤ 기타 활동 :

- 2. 25. 여성평화협정캠페인(해외그룹) :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 하노이 방문 양 정상에게 서신 전달함. 평화여성회에서는 김성은, 김귀옥, 박현선, 조영희, 여혜숙, 이나영, 안정애, 김정수 서명함

- 위서신 통일뉴스에 소개됨

(2) Women, Peace, Security 동북아 지역워크숍

- 제목 : Northeast Asian Countries' Contributions to the Women, Peace, Security Agenda

- 일시와 장소 : 12월 10일(화) 중국 베이징 Westin Chaoyang Hotel

- 주최 : UNDP(UN Department of Peacebuilding and Political Affairs), UNWomen,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한국참석자 :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해외 참석자 : 몽골, 중국, 일본, 유네스코, 유엔여성, SIPRI 등

- 프로그램 :

① Opening remarks

② Presentation of the SIPRI Report on Northeast Asia countries' Contribution to the Women, Peace, Security Agenda

③ Presentation of the 2019/20 WPS Index from the Georgetown

Institute of WPS, followed by discussion

④ WPS in Northeast Asia: ahead of the Beijing+25 an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⑤ Closing Remarks: UN Women, DPPA

(3) 6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 연대모임 준비 활동

3) 국내활동

(1)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공식발족 행사

※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국내캠페인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심포지움 행사와 결합하여 진행함

- 일시와 장소 : 2019년 5월 24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① 1부 기자간담회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Women-led Korea Peace Campaign)

- 경과보고 :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참가단체 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한국YWCA 평화통일위원회 장미란 위원장

- 성명서 낭독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Campaign 발족 기념 공동성명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들이 행동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국제여성평화운동 단체인 Women Cross DMZ, Nobel Women Initiative, WILPF와 함께 지난 2015년 30명의 국제여성 평화운동가들이 남북의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여성평화걷기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평화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 출범하였다.

여성들이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66년 동안 분단 체제로서 아직도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다. 66년의 분단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북의 핵개발과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가공할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주민들은 살아왔다. 분단은 그 자체로서 폭력인 바, 한국전쟁은 당장 종식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전쟁과 분단체제에서 성폭력, 젠더폭력의 피해자로서 살아왔고, 북 여성들 또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의 결과로 고통과 희생을 치루며 살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비평화의 요인이며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해 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1위)-중국(2위)-러시아(3위)-일본(8위)로 막강하며 한국 역시 세계 10위의 군비지출을 하고 있다(2018년 기준). 군비증강은 곧 군사적 긴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군사적 경쟁 구도를 평화의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는 것 이외의 확실한 대안은 없다.

이에 한국의 여성운동, 남북여성교류, 대북인도적 지원, 국제여성평화연대 활동을 주도해 온 4개의 단체들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결정하여 국제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 -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남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과 미국, 북과 세계를 소통시키는 화해의 촉진자 역할과 보다 적극적인 평화체제 형성의 당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유엔에 대한 요구 - 유엔은 한국전쟁에 다국적군의 참전을 결정한 주체로서 판문점에 이름뿐인 유엔사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전쟁과 분단의 지속에 관여하고 있다. 이제 국제평화를 위해 창설된 유엔은 한반도의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유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회원국은 한반도 종전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에 대한 요구 -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 중 북과 수교하지 않고 협력적 대화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서, 1950년 발발하여 66년째 휴전 상태를 지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북과 의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로 나서야 한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여성들의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단지 숫적인 참여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여성참여의 모델을 발굴하고 한반도에 적용가능한 참여의 실천을 통해 여성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 전체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9년 5월 24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② 2부 : 토론회 (Korea Peace Now!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들의 행동)

- 격려사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성은 평화여성회 이사장

- 주제 발표: 한반도 여성들이 평화운동의 역사와 향후 방향

김정수 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발표

- a. 여성주의 외교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 (조영숙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 b. 시민사회와 의회의 새로운 모델 : 한반도 전쟁 종식요구 결의안과 의회 로비 활동 (이현정, WCDMZ Consultant/ US Organizer)
- c. 한반도 평화와 UN, 여성참여 (고유경 (WILPF Consultant))
- d. 여성평화운동과 분쟁지역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e. 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제를 향한 여성의 역할 (최수산나 총괄 부장,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2) 경기도 주최 DMZ 국제회의 중 ‘여성과 평화’ 세션 주관

- 일시와 장소: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고양시 킨텍스

- 주제: Women Crossing Borders: DMZ and Women's Peace Movement

- 발표

- 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여성: 2020까지(크리스틴 안 WCD 사무총장)
- ② 한반도 평화체제와 성평등한 한반도(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③ 동북아시아 다자안보노력, 여성, 그리고 일본(코즈에 아키바야시 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
- ④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내 운동(이현정, WCD 미국조직위원)
- ⑤ 분단, DMZ,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삶(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4) 2019년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평가와 과제

- (1) 2015년 5월 진행된 Women Crossing DMZ 행사, 2016~18년까지 진행된 여성평화걷기 행사의 성과를 이어받아 2019년에는 국제그룹과 함께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네트워크의 참여단체의 하나로 기획, 콘텐츠 발굴, 실질적 참여 등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 (2)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의 운동은 국내의 4개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이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전쟁종식을 위한 연대를 구축한 바, 이는 각 단체의 장점을 드러내고 다양성은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과제를 위해 연대한 사례라 할 것이다.
- (3) 2019년의 활동을 통해 한국여성평화운동 전체의 역량이 축적되고 확산되었으며,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의 공공외교 사례가 국내시민단체의 국제연대와 거버넌스 차원에서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국제여성평

- 화운동에도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역량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4) 2019년의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통해 2020년에는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 연대, 더 나아가 여성시민 공공외교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과제를 지닌 다.

2-3.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협의체 활동

※ 평화여성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GPPAC 동북아시아협의체 한국(서울) 공동 포컬포인트로 활동 하고 있음

▣ 제 5차 GPPAC 동북아시아회의

- 일시와 장소 : 2019년 8월 21일(수)-24일(토), 울란바타르(몽골)
- 한국참석자: 평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영아 활동가
- 북한참석자: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오룡일 상무위원, 유송림, 리학철 비서
- 참석국가(도시): 몽골(울란바타르), 중국(베이징, 상하이, 홍콩),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남한(서울), 북한(평양), 일본(동경, 교토), 캄보디아(시엔립), 미국(워싱턴), 네델란드(헤이그) 등
- 주요활동
 - ① 김정수 대표 “한반도평화과정과 gender mainstreaming 발표
 - ② 북한의 Korea National Peace Committee 오룡일 상무위원에게 Korea Peace Now 캠페인 및 2020년 3월 뉴욕 64차 CSW ngo side event 남북여성 공동 참여 제안 및 여가부 발행 1325 역량강화매뉴얼 1권 등 전달 및 UNSCR 1325 DPRK NAP 수립 제안 등
- 프로그램

**GPPAC NORTHEAST ASIA
- ULAANBAATAR PROCESS MEETING
Ulaanbaatar, Mongolia
22-24 August, 2019**

Organizers: GPPAC Northeast Asia and Blue Banner, NGO of Mongolia.

August 22 (Thurs):

- AM: Formal opening session (Venu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Chaired by Ambassador Enkhsaikhan Jargalsaikhan of Blue Banner
Opening remarks by representatives of the Mongo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rliamentary Security and Foreign Policy Standing Committee et al
- Launch of the GPPAC Northeast Asia/ Ulaanbaatar Process Publication Vol. II
- First Closed Substantial Session: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overview of framework, objectives and agenda of meeting

Briefing by a representative of the Ulaanbaatar Dialogue

- PM: Informal Networking and Cultural Programme (including welcome dinner)

August 23 (Fri):

- Regional updates and presentations by participants on peace and conflict trends in the region and related initiatives
- Discussion on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ugust 24 (Sat):

- Strategic planning regarding regional priorities, coordinating efforts, GPPAC contribution
- Discussion and planning for future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brainstorming for 2020 and beyond

[참고자료]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Meeting: Ulaanbaatar Process V
Summary Document**

August 22-24, 2019 Ulaanbaatar, Mongolia

Background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Meeting and fifth Ulaanbaatar Process meeting was convened in Ulaanbaatar, Mongolia between August 22-24, 2019. Hosted by the Mongolian NGO Blue Banner, the meeting was co-conven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cluding its Northeast Asian Regional Secretariat, Peace Boat. The Ulaanbaatar Process is a civil society dialogue on peace and st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 and has been held annually since its launch in 2015, with the goal of “making a habit of dialogue.” While a great distance remains to go to achieve sustainable peace in the region, participants reflected upon the changes which have taken place in Northeast Asia in these several years, acknowledging the momentous steps which have been made and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during this period by both the Ulaanbaatar Process itself and other initiatives for peace in the region.

Overview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s a member-led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around the world. GPPAC was founded upon the

proposal by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and officially launched in 2005. It is structured around 15 regional networks, with its Global Secretariat located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Approximately 25 participants joined the meeting, including from the GPPAC Global Secretariat (the Hague), GPPAC Northeast Regional Secretariat (Tokyo), and network members and partners from Beijing, Kyoto, Pyongyang, Seoul, Shanghai, Tokyo, Ulaanbaatar and Vladivostok,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east Asia. This included a range of actors including grassroots peace organisations, feminist groups, peace and disarmament experts, humanitarian practitioners, academics and educators, researchers and more. The meeting began with an official opening hosted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and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His Excellency P. Ochirbat, the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of Mongolia, State Secretary D. Davaasuren, and Member of Parliament N. Oyundari. This was followed by two and a half days of closed-door consultations.

The special opening session featured the launch of GPPAC Northeast Asia's second publication, "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 in a Changing Northeast Asia – Voices from Civil Society and the Ulaanbaatar Process." This collection of twelve essays captures the diverse perspectives, opinions and concerns of a region now standing at a critical crossroads, following the historic Summits of the past year and as there is an unprecedented interest from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ublication contains a variety of perspectives from academics, peace activists, educators and practitioners, featuring sections on the changing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d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the US-DPRK relationship, the path towards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efforts of civil society to support a peaceful future for the region. The contributors to this volume, nine of whom were present at the meeting in Ulaanbaatar, are all involved in various initiatives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in Northeast Asia, and united by their involvement with GPPAC.

A Region at a Critical Crossroads: The Current Context

The meeting took place at a time whe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tands at a critical crossroads. While the previous meeting took place in December 2018, amidst an unprecedented optimism for concrete progress in the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in the months since have included the lack of an outcome of the Hanoi Summit and increasing tensions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Notably, the fractured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reaching a serious level at the time of meeting, is of serious concern. Further, despite the numerous summits and talks which have taken place recently, we are yet to see real progress in the US-DPRK or inter-Korean dialogues. A great deal

of action is required to achieve the concrete results required for building real,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he negative impact of sanctions on humanitarian initiatives in the DPRK, which play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mutual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he peacefu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lso of great concern, and meeting participants shared the specific and serious obstacles these developments create for the continuation of their work. Other current obstacles raised by participants included the trade war and ongoing “cold war” and its impacts on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for example prevention of implementation of constructive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Military build-up and militarization in the region, as well as aggravated hate speech and crimes, were also raised as serious challenges to be addressed by civil society in the region, and the roots of these issues in continuing colonialism, racism and sexism were noted.

Key Priorities

Since the launch of the Ulaanbaatar Process in 2015, the priority themes have been issues pertaining to peace and huma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Within are the subtopics of ending the Korean War with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with a permanent peace treaty, trust and confiden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and denuclearization and disarma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continued importance of these themes was reaffirmed at this meeting, and discussions on concrete activities that can be taken in these areas formed a significant part of the proceedings. The peace and common human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maintained as a key priority. Particularly, participants emphasized the urgent need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s mentioned above, discussions examined the negative impact of sanctions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vere obstacle sanctions comprise to humanitarian aid and even the possibility of people-to-people exchange. Questions were raised as to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in achieving even their supposed goals, and suggestions made regarding cooperation with research on this issue, including with researchers from countries such as China. Further, the need for more concerted outreach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ited Nations on this issue was underscored.

Following a dedicated session during the meeting, discussion was also conducted regarding steps which civil society can take to contribute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mples of existing proposals, such as the relevan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were shared and discussed. A further focus

the role of Nuclear Weapon Free Zones and the need to eliminate the nuclear component from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the need to remove nuclear threats from the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ly, including the nuclear umbrella. Discussions then focused on GPPAC's approach to ongoing governmental talks regarding denuclearization, and the need to share and welcome different ideas, while clearly communicating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ed for expanded multilateral dialogue and trust building among states was recognized as key, particularly reflecting upon the recent situation of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As a civil society initiative, it wa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for GPPAC to raise awareness among civil society, especially for those potentially affected by the nuclear problem, and to build public opinion. And finally, the core emphasis on human interaction and an inclusive approach were emphasized. Underscoring its core foundation as a civil society initiative, the Ulaanbaatar Process aims to develop civil society in Northeast Asia's capacity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 particular focus during this year's meeting was placed on youth capacity development. Participants shared various activities and initiatives they are undertaking throughout the region toward this goal, such as Peace Boat's Global University,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and activities with university students. This echoes GPPAC's Youth Policy adopted in May 2019,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eaningful youth involvement in peacebuilding as leaders, partners and agents for peace.

Concrete discussions continued regarding how GPPAC can concretely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capacity to engage" –for youth and also other members of civil society to constructively engage in the peace process, and in international spaces discussing peace and security. A desire for not only training but for more opportunities to test and implement the skills developed in a safe space was expressed, particularly for participants from the DPRK. In this respect, suggestions such as expanded provision and sharing of training materials and opportunities through the GPPAC network, programs targeting students, and consideration of establishing a youth track or branch of the Ulaanbaatar Process were raised. As a concrete follow up, it was also suggested for the GPPAC NEA secretariat to compile lists of opportunities for capacity building and youth involvement, so as to expand access to and inclusivity in already existing platforms and events.

The issue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region, and particularly in the Korean peace processes, was also crosscutting throughout discussions. It was recognized that women and girls are affected differently by armed conflict, and yet that their voices and faces are not heard and seen in peace talks at this moment. Several participants shared their experiences in cooperating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Peace Now! Women Mobilize to End the War Campaign, working to

ensure ful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 processes and redefine security from a gender perspective. Further, participants also expressed the need for more gender analysis of conflict and sanctions, and for expanded collaboration with women-led movements.

Action for the Future: Moving Forward

With heightened global attention on Korean Peninsula, and the crucial moment of the end of 2019 near approaching, the key question for the Ulaanbaatar Process is how to utilize this momentum to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progress in the peace process. The conveners of the Ulaanbaatar Process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participants to further elaborate both a short-term and also five-year plan, tying in with GPPAC's strategic planning process. Participants were reminded of the long-held goal of the process to set up a follow-up group to more deeply examine the issue of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Zone. This, along with other potential working or spinoff groups, could also incorporate the objective of self-evaluation of the process as it approaches five years since its launch. Concrete initiatives to deepen youth participation i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discussions will also be pursued,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capacity 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for youth from the DPRK. Such opportunitie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GPPAC and the Ulaanbaatar Process itself, and coordination between existing opportunities in which participating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universities are already involved was strongly recommended. Participants also agreed to issue a statement regarding the highly concerning increase in tens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be used in mobilizing public opinion particularly within the Japanese context. The heavy impact of differences in historical recognition and the ongoing legacies of colonialism were noted as root causes for this current situation, and participants agreed on the need for further dedicated efforts to overcome these ongoing challenges. Reflecting upon the principles and agenda of the Ulaanbaatar Process agreed upon at the inaugural meeting, participants emphasized that they remain current and important,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Ulaanbaatar Process. Co-convenor Blue Banner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once again host the next meeting in Mongolia, potentially in June or September 2020, while the Charhar Institute of Beijing also indicated interest i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network to convene. The relevance of engag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think tanks was debated during the meeting, and some participants suggested to pursue partnerships or hold a specific session during the next Ulaanbaatar Process meeting inviting such actors. Further suggestions for the next meeting included organizing a public event, pursuing the launch of a youth track, and conducting an internal evaluation as the process reaches the five year milestone. Participants remarked upon the usefulness of

outreach documents such as the publication launched during the meeting's opening session, and the desire to develop further such tools and materials. Finally, while confirming their own ongoing participation, members reaffirmed that this process remains broad and open. They emphasized the hope of expanding collaboration with civil socie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coming years, grounded on the principles of inclusivity and openness, and focusing on peacebuilding opportunities rather than security threats, while building mutual friendship and understanding.

*This Document features salient points raised during the meeting,
not an exhaustive documentation of discussion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eri Joyce (meri@peaceboat.gr.jp)*

<2019년 사업 계획안>

3. 여성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다.

갈등해결센터에서 2018년 개발한 '2030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매뉴얼'을 활용하여 청년,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여성평화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3-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 3-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 보고 참조

3-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 사업 개요

- 사업제목 : 참여와 체험을 통한 세대공감 평화통일교육
- 사업기간 : 2019.5.1~10.31
- 사업비 : 통교협 지원금 7,000,000원 자부담 1,297,000원

(2) 사업 목적

- **평화통일교육 진행자를 훈련하고 양성함** : 참여적이고 의사소통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참여자의 통일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확산함**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발굴, 즉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공동체적,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참여자들의 평화적 문제해결, 갈등해결 방식 습득하게 함** : 남북의 평화

적 공존을 위하여 평화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익히게 한다.

(3) 사업 준비

① 1차 기획회의

- 일시 : 5월 13일(월) 18:30-20:00
- 참석 : 김정아, 박인혜, 여혜숙
- 내용 : 박인혜 총진행, 1회 차 시간 배분

② 2차 기획회의

- 일시 : 6월 4일(화) 17:00-18:00
- 참석 : 이권명희, 여혜숙
- 내용 : 1,2차 교육 평가, 3회차 교육 진행 논의

③ 3차 기획회의

- 일시 : 6월 11일(화) 18:30-21:00
- 참석 : 김희은, 김정아, 김지선, 박인혜, 손희정, 여혜숙
- 내용 : 지난 교육 중간점검, 이후 교육 기획

(4) 세부 사업

▣ 사업 1 :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과정 (총21시간)

- 회차 : 총 7회
- 평균참석자 : 총 34명 , 수료 22명 (80%이상 출석)
김다미, 김란희, 신연선, 이현숙, 조윤희, 김경선 (개근:6명) 권미영, 김선화, 김영희, 박연희, 서민순, 손서정, 손순례, 손희정, 신민자, 안정임, 임연희, 정은선, 차승주, 한미란, 현애경, 황보양선
- 홍보 : 웹자보 제작
 - a. 홈페이지
 - b. 페이스북

회수	일자	시간	강의명(주제)	강사
1회	5/23(목)	18:30~21:30	평화통일교육의 이해	김정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사업단) 정서윤(민주평통 주무관)
2회	5/30(목)	18:30~21:30	한반도 평화란 무엇인가?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회	6/13(목)	18:30~21:30	차이와 인정 적대감 해소와 편견 극복	이권명희(여성사회교육원 교육이사)
4회	6/20(목)	18:30~21:30	대화로 평화통일 이끌기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5회	6/27(목)	18:30~21:30	교육진행방법론 교육기획안 구성	김지선(카톨릭대학교 강사)
6회	7/4(목)	18:30~21:30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배우기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7회	7/11(목)	18:30~21:30	조별 교육진행 시연 및 수료식	김지선(카톨릭대학교 강사)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 사업 2 : 세대공감 평화통일 기행

- 일시 : 2019년 9월 28일 (토) 8:40~18:00
- 사업 장소 : 파주, 연천(돼지열병으로 연천 승전 op는 들어가지 못함)
- 사업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일반 시민
- 참석 : 37명
- 강사 :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 집결장소: 합정역 홀트아동복지회 앞

○ 행사 시간표

08:40-09:00 인원점검

09:00-10:00 이동

10:00-11:30 임진각

- 망배단

- 녹슨 증기기관차

- 체험 활동: 평화의 리본달기(민통선 철책선)

- 통일대교 (정주영 회장의 뜻으로 통일소 1,001마리가 소뿔 방북을 한 다리)

11:30-12:30 식사

12:30-14:00 도라산역/도라산전망대

- 도라산역 : 2007-2008년 남북한이 왕래했던 국제역

- 도라산전망대 : DMZ 너머 개성공단, 개성시내 조망가능

14:00-15:00 허준 묘소 방문

15:00-16:00 이동(파주-합정역)

【3】 조직역량 강화사업

<2019년 사업 계획안>

4. 조직역량 강화사업

4-1.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조성사업

본회의 활동에 지지하고 참여하는 회원들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록 노력한다.

- 1) 회원네트워크 사업
- 2) 회원 확대 사업 등

4-2. 회원참여사업

분단에서 평화로의 전환 시기에 회원들이 쉽게 참여하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문화 확산사업을 전개한다.

- 1) 평화기행
- 2) 평화캠프 등

4-3. 평화여성회 홍보 강화 사업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 기반을 재정비하여 이를 활성화한다.

-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개편 등

4-4. 평화여성회 본회와 부설기구 제 규정 정비

4-1.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조성사업

매월 회원 가입을 통해 2019년 총 59명이 회원가입을 함으로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월 : 박지용, 장효순

2월 : 최정남, 김희은, 김영아, 정혜진, 이윤아, 양덕열, 손서정, 김귀희, 신난희, 김영순

3월 : 한산석, 이상화, 김희정, 박현숙

4월 : 이현숙, 이예정, 이영분, 이경민, 박소영, 박주혜, 최영애, 송혜련

5월 : 김지호, 박순옥, 최윤태, 천정환, 정원진, 백영민, 박유희, 홍승희, 박병인

6월 : 이권명희, 서민순, 김정자, 김영리, 이애덕

7월 : 윤보영, 김성경, 김다미

8월 : 박배균, 김선일, 한옥화, 강지윤, 강성천, 정경희, 박선옥

9월 : 김동환, 김진영, 상호문화 Style 연구소, 김예슬, 손빛나리, 이충진

10월 : 지혜경

12월 : 최수지, 허영란, 최은영, 고유경

4-2. 회원 참여사업

☞ 2019년 사업보고 참고

2019년 여성가족부와 통일교육협회의 두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가입과 더불어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시켰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네트워크, 여성평화 토크쇼를 진행하였고, 회원은 2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여성·평화·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라는 교육 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여성·평화·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년이 되는 2020년 심화된 교육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통일교육협회의 “참여와 체험을 통한 세대 공감 평화통일 교육” 프로젝트는 평

화·통일교육 진행자 과정과 세대 공감 평화통일 기행을 진행하였고, 역시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원가입도 확대 했다.

4-3. 평화여성회 홍보 강화 사업

1. 온라인 소식지 발송

1) 온라인 소식지 1월호

-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 내용 : 활동보고, 북경회의 평가회,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2019년 계획 수립회의

2)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26일(토)
- 내용 : 23차 정기총회 안내

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분들께 보내는 신년인사

-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 내용 : 정기총회 결과 안내 및 회원분들께 보내는 신년인사

4)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 내용 : 신임임원 선출 안내,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신년인사 보고, 여성선언 발표,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진행

5)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19년 2월 21일(목)
- 내용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알림

6)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 내용 :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진전 기대 성명

7)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19년 2월 26일(화)
- 내용 : 여성평화운동가들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평화의 서신발송

8)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식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 내용 : 평화통일교육 연구모임 구성 안내

9) 평화여성회 소식

-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 내용 :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공모사업 선정, 김성은 이사장 민화협 공동의장 선출, CSW NGO side event 본회 김정수 상임대표 참여

10) 평화여성회 활동소식

- 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 내용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갈등해결센터 1회 평화통일교육연구모임 진행 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 소식

11) DMZ 평화손잡기 참여안내

- 일시 : 2019년 4월 4일(목)

12) 2019 여성지도자초청 대토론회 안내

-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13) 4월 온라인 소식지

-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 내용 : 사무국 소개,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2차 모임 안내, DMZ 민(民) + 평화 손잡기 참여 안내, 여가부 지원사업 일정 안내

14)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네트워크 워크숍” 안내

- 일시 : 2019년 5월 3일(금)

15)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훈련과정” 안내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16) 5월 온라인 소식지

- 일시 : 2019년 5월 13일(월)
- 내용 : 여가부, 통교협 프로젝트 진행 소식, 평화여성회 활동 내용 및 사진

17)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성명서

-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18)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캠페인 발족 및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심포지움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 19)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출범, 6/18 통일
교육협의회 여성분과 위원회 기행 안내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 20) 6/4 민화협 평화기행 안내
-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 21) [논평]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 일시 : 2019년 7월 3일(수)
- 22) 8/9 여성·평화토크쇼 안내
- 일시 : 2019년 7월 15일(월)
- 23) 7월 온라인 소식지
-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 내용 : 여성·평화 토크쇼 안내, 세대공감 평화통일 기행 안내, 5-7월 평화여성
회 활동,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둘러보기 등
- 24) 여성·평화 토크쇼 안내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 25) 세대공감 평화 통일 기행(9/7) 안내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 26)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요영화제 안내
-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 27) 10월 온라인 소식지
-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 내용 : 8-10월 평화여성회 활동,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요영화제 안내,
평화여성회의 Korea Peace Now 연대활동 등
- 2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 연구위원, 후원회원 평화여성회 소개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 내용 : 평화여성회 소개 및 활동 등
- 29)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제 4차 수요영화제 안내
-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 30) 미국의 과도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여성들은 분노한다. 성명서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31)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및 곳감판매 안내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32) 송년 인사

- 일시 : 2019년 12월 30일(월)

29) 2020년 제 24차 정기총회 공지

- 일시 : 2019년 12월 31일(화)

2. 홍보문자 발송

- 내용 : 평화여성회 행사 안내 및 회의 안내
- 일시 : 5/8, 5/9, 5/16, 5/17, 5/22, 6/21, 6/24, 7/5, 7/9, 7/15, 7/24, 7/29, 8/6, 8/13, 8/23, 9/2, 9/2, 9/6, 9/10, 9/11, 9/20, 9/27, 10/14, 11/4, 11/7, 11/15

3. 홈페이지 개선

- 일시 : 7월 4일(목)
- 주소 : <http://www.peacewomen.or.kr/>
- 개편내용 : 걸어온 길, 하는 일과 사람들, 연락처 및 약도

4. 평가

2019년에는 오즈메일을 통해 온라인 소식지와 행사소식안내 문자 발송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에 대한 진행 사진 및 평가가 잘 이루어졌다. 또한 시명수 회원을 통해 홈페이지 개선이 이루어져 평화여성회의 걸어온 길에 대한 자료가 2017년까지 업데이트 되었고, 임원현황도 변경했다. 2020년에는 걸어온 길과 관련 2018-2019년 자료도 정리되어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대 및 협력 사업

<p><2019년 사업 계획안></p> <p>1. 국내 상설연대</p> <p>1-1.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통일평화 T/F 모임 등</p> <p>1-2.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주관 등</p> <p>1-3.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p> <p>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등</p>
--

1-5. 시민평화포럼
1-6. 통일교육협의회

1. 국내 상설 연대

1-1. 한국여성단체연합

1) 여성연합 이사회

(1) 1차

- 일시와 장소 : 2월 15일(금) 09:3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주요안건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성평등 디딤돌상, 결림돌상 선정

(3) 3차

- 일시와 장소 : 11월 6일(수)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주요 안건 : 2020년 제34차 총회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 이사회 평가와 2020년도 이사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관련 논의건 등

2) 여성연합 여성평화 TF

- 구성 :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아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조영숙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김엘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희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현백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조영미 포항여성회 회장 금박은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주 여성연합 공동대표 백미순 김영순 최은순 국제연대센터 소장 조영숙 활동가 정은아
- 평화여성회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1) 1차

- 일시와 장소 : 4월 23일(화),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발제 : 유엔안보리 1325호와 여성주의 외교정책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 토론 : 김정수 조영주

(2) 2차

- 일시와 장소 : 7월 3일(수),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주제 : 평화 통일 관련 단체 및 기관 현황과 개입 전략·여성평화통일운동 여성연대 활동 소개 김정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평가하며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여혜숙
평화통일 관련 경기도 현황 이정아
수원여성회와 통일운동 조영숙 수원여성회

평화 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백미순

(3) 3차

- 일시와 장소 : 9월 10일(화),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한반도 평화경제 : 한반도 평화 경제와 성평등의 실현 : 조영주
- 2020년 총선 및 대선 대응 여연 평화 통일 의제(백미순)

(4) 4차

- 일시와 장소 : 11월 4일(월),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주제 : 여성 평화 협정 사례 검토(1)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조영미
-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과정에서의 여성참여의 경험과 교훈 김정수

(5) 5차

- 일시와 장소 : 12월 3일(화), 청계천 한식당
- 주제 : 여성 평화 협정 사례 검토(2)
- 라이베리아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 전환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정은아)
-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 피해와 대북제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2019년 여성평화TF 활동 평가와 2020년 활동 논의 등

3) 여성연합 연대활동

(1) 제63차 CSW 참여활동 사전오리엔테이션

- 일시와 장소 : 2월 26일(화) 11:00, 여성미래센터 바오밥나무
- 참석 : 여성연합 백미순, 오경진, 평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전회장 등

(2) 남북여성교류(여성통일행사 준비) 관련 미팅

- 일시와 장소 : 2월 28일(목) 14:00, 여성미래센터 바오밥나무
- 참석 : 여성연합 백미순 대표, 김정수 상임대표
- 내용 : 남북여성통일행사 준비 간담회(4월초 예정), 여성연합 평화통일TF 준비

(3)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석

- 일시와 장소 : 3월 9일(토) 저녁 광화문 광장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채안진경,

(4) 베이징+25주년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점검 프로젝트

 **시민사회 보고서 [e. 여성과 무력분쟁] 정책자료는 사업보고 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 점검 프로젝트'>

(1) 사업 일시 : 2019년 4~6월

(2) 사업 목적

가. 여성 시민사회 관점에서의 정부의 국가·지역 차원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 및 CEDAW, SDGs, UN 1325 결의안 등 국제 여성인권 메커니즘과 연계한 정부의 이행 촉구

나.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이행에 관한 여성 시민사회 측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현황 보고서 발간, 베이징+25 주년 국가별, 대륙별, 국제적 절차에 기여다. 지역 및 이슈별 여성단체들의 모니터링 및 베이징+25주년 글로벌 논의체계의 참여를 통한 한국 여성 시민사회의 국가적, 글로벌 차원의 정책 옹호 역량 강화

(3) 후원 : APWLD (Asia-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4) 참여 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회원단체, 연대단체 등

(5) 이행 점검 주요 영역 :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메커니즘, 여성 폭력과 인권, 여성과 경제, 현안 과제 등

(6) 세부사업 주요 내용

가. 베이징+25 시민사회 워크숍 (5월 초)

나. 이행 점검 모니터링 및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5월)

다. 베이징+25 관련 정부 에드보커시 활동 (5월)

라. 베이징+25 이행 점검 시민사회 토론회 (6월 초)

마. 베이징+25 이행 점검 시민사회 보고서 발간 (국/영문) (6월 중)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북경행동강령 E. 여성과 무력갈등> 분야 작성하여 제출함 (작성: 김정수 상임대표)

(5) '베이징+25주년 기념 베이징행동강령 주요분야 이행점검 국제여성포럼: from 베이징 to 서울' (지난 5년 간의 주요 진전 및 도전 과제, 앞으로의 대안)

- 일시 : 8월 12일(월)~13일(화)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후원 : APWLD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프로그램

①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점검(1)> 여성과 폭력 및 인권

②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점검(2)> 여성과 경제

③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점검(3)> 여성과 평화 및 안보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Li Yingtao (Professor,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Sumire Hamada (Secretariat, Asia-Japan Women's Resource Center)

④ 정리회의 및 세대간 대화 (Inter-generational Dialogue) 워크숍

: BPfA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제안 및 베이징+25 글로벌 절차 참여 전략

(6) 제21대 총선 젠더정책 발굴·제안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프로세스)

☞ 평화여성회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제안 내용은 앞 000쪽 참조

①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9월 17일(화) 오후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주요내용 : 제21대 총선대응 젠더정책 발굴, 제안 활동에 대해 기존활동을 공유하고 정책의제 작성 틀을 공유함

②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10월 8일(화)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주요내용: 각 단체가 작성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함

③ 총선정책팀 9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10월 18일(금) 오전,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주요내용 : 여성연합 총선정책만들기 워크숍 내용 공유, 총선정책팀 원고, 단체별 정책과제, 추후계획 등

④ 최종워크숍

- 일시와 장소 : 10월 31일(목) 오전
- 주요내용 : 여성연합 총선정책팀의 총론 원고 공유, 향후계획, 단체별 젠더정책과제 검토 등을 공유하고 논의함

(7) 비핵, 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

① 한일참가단체 국회의원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5월 30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 주관 :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 참가 : 일본단체 대표 및 한국단체 대표 &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② 주제별 워크숍 : 한일여성연대를 통한 동북아시아 비핵, 평화와 성평등을 향하여

- 일시와 장소 : 5월 30일(목) 오후 2~5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석 : 김성은 이사장, 여혜숙 공동대표, 김경선 활동가
- 프로그램
 - a.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성인지적 개입(조영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b.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제와 비핵화, 평화구축(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c. 한일여성연대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비핵, 평화, 성평등(Kasai Kimiyo 신일

본부인회 회장)

③ 한일여성 교류회

- 일시와 장소 : 5월 30일(목) 오후 6시, 정동 어반가든 레스토랑
- 참석 : 신일본부인회 참가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단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문미란 실장 등

(8) 여성미래센터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와 장소 : 6월 19일(수) 정오, 센다이 참치(영등포)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 :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남인순 20대 국회의원, 이찬진 변호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 내용 :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 개편 및 운영 계획, 여성미래센터 개관 10주년 준비, 여성미래센터 장기 운영 방향 논의 등

(9)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회의

① 1차 입주단체회의

- 일시와 장소 : 3월 18일(월)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가 : 김은희

② 2차 입주단체회의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월)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가 : 김경선

③ 3차 입주단체회의

- 일시와 장소 : 10월 14일(월)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가 : 김경선

④ 입주단체 공동체 모임

- 일시와 장소 : 11월 14일(목) 낮12시,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
- 참가 : 김경선

⑤ 4차 입주단체회의

- 일시와 장소 : 2월 16일(월)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가 : 김경선

1-2. 정의기억연대 (前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고(故) 김복동 평화인권 활동가 공동상주 활동

- 일시와 장소 : 1월 29일(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빈소 방문, 공동상주 및 부고(신문광고) 공동모금 참여
- 공동상주 참여 : 평화여성회 이나영 이사 외

2)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발표

- 일시와 장소 : 2월 28일(목) 오전 10:30
- 홍보 : 3월 1일(금) 워싱턴포스트 광고 게재

1-3.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 남측위원회 회의에 본회 김정수 상임대표가 6.15 여성본부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1) 남측위원회 회의 및 활동

(1) 상임대표 회의 및 운영위원회 : 6/12, 7/6, 8/7, 10/2, 11/5, 12/20
워크숍 12/20

(2) 6.15 공동위원회 심양 실무협의(5월 23일) 경과보고 모임

- 일시와 장소 : 5월 27일(월) 오전, 6.15 남측위 사무실(서대문)
- 내용 : 6.15 공동위원회 심양 실무협의 : 개최 취소, 이후 실무협의 형식으로 개최됨 등 보고

(3)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행사

- 일시와 장소 : 6월 15일(토) 17:00, 광화문 북측 광장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결의문 낭독)

(4)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 일시와 장소 : 8월 15일 15:00, 광화문 북쪽 광장
- 프로그램 :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대회와 평화손잡기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조영희 이사 등

2)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활동

※ 6.15 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로 김정수 상임대표가 활동하고 있음

(1) 2019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여성해외 여성연대 모임 참가

☞ **본회 사업보고 (남북여성교류) 부분 참조**

(2) 6.15 여성본부 총회

- 일시와 장소 : 6월 5일(수),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내용 : 임원단 선출 및 2019년 사업계획 승인 등
 - ① 본회의 김정수 상임대표가 6.15 여성본부 상임대표로 선출됨
 - ② 북측 6.15 여성분과에 남측 여성본부 임원교체 및 협력사업 제안 서신 전달 (2019.5.23.)
 - ③ 2019년 6월 26일(수) 최진미 전 대표로부터 인수인계 받음 (회의자료, 회원단체자료, 회계자료, 통장 등)

(3) 6.15 여성본부 공동대표회의

① 1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5월 13일(월)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카페
- 구성 : 김정수(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민화협여성위원회),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참석 : 김정수(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민화협여성위원회),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안건 : 여성본부 향후 활동 및 남북여성교류에 관한 전반적 의견교류 등

② 2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7월 5일(금) 오전 10시, 여성미래센터 4층 카페
- 구성 : 김정수(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민화협여성위원회),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외숙(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종교계)
- 참석 : 김정수(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민화협여성위원회),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안건 :
 - a. 6.15 남측위원회 파견 집행위원장 추천의 건
 - 여성연합에서 양이현경 사무처장을 운영위원으로 파견하기로 함
 - b. (가칭) <광복 74주년 8.15 평화 손잡기 추진위원회> 결성의 건
 - 여성본부 전체 참여하기로 함
 - c. 여성본부 사업 논의 등

(4) 6.15 남측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 일시와 장소 : 6.26(수) 오전 10시, 본회 회의실
- 방문 : 최은하 사무총장
- 내용 : 남북여성교류 재개 방안, 통일운동 발전 방향 모색 등

(5) 북측 여성분과위원회 메시지 전달 및 답장 수신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성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북측 여성분과위원회 성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을 기념하여 북측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커다란 기대를 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남측 여성분부는 지난 6월 5일 총회를 열고 새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2019~2020년까지 남측 여성분부를 위해 활동하게 될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임대표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공동대표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남측 여성분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앞당기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측 여성분부는 지난해 남북 정상들에 의해 합의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들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해외 여성들의 평화통일연대 대표자 회의'를 가을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를 제안합니다.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 여성 대표들이 힘을 합쳐 공동선언 실천을 앞당기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만든다면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갖고자 하오니 북측 여성분과 성원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시면, 남측 여성분부의 대표단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답변 주시길 고대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9년 6월 26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드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녀성본부 앞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는 6.15남측위원회 녀성본부의 전체 성원들에게 동포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진행된 귀 본부의 정기총회에서 김정수선생이 6.15남측위원회 녀성본부 상임대표로, 백미순 한국녀성단체련합 상임대표와 한미경 전국녀성련대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로 선출된데 대해 축하를 보냅니다.

력사의 새시대가 힘차게 태동하는 시기에 귀 본부의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은 정의와 진보, 자주통일을 위한 려정에서 매우 뜻깊은 하나의 큰 걸음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 본부 성원들이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남녘에서 녀성들의 참다운 존엄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유린하

며 북남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적폐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활동에서 의의있는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계의 커다란 기대와 환영 속에 얼마전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남미 수뇌분들의 상봉으로 새롭게 마련된 조미,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여성들이 앞에서 추동하기 위하여 귀 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주체 108(2019)년 7월 5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귀하

안녕하세요?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7월 5일자로 보내주신 답장을 잘 받았습니다.

귀 여성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이러한 평화 과정에 여성들도 커다란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측 여성들은 다가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기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를 촉구하는 남북여성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 (1) 남북의 여성들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항구적 평화를 원한다.
- (2)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선언 실천과 이행을 지지해야 한다.
- (3)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여성공동선언문은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국무부, 상원, 하원을 포함하여 유엔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남측의 여성들은 성명서에 연명하는 단체에 6.15 남측 여성본부를 비롯하여, 더 많은 각계 각층의 여성단체들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북측 여성분과위원회도 소속 단체들을 비롯하여 더 많은 북측의 여성단체들을 공동성명에 연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월 27일 이전에 공동성명서 내용이 합의되어야 하기에, 빠른 시일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2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민화협 여성위원회

※ 민화협 활동은 공동위원장으로 김정은 이사장이, 여성위원장(공동)으로 김정수 상임대표가 참여하고 있음

1) 회의

(1) 대의원 총회

- 일시와 장소 : 3월 6일(수) 14:00, 백범기념회관 대의원총회
- 참석 : 김정수
- 내용 : 본회 김정은 이사장 공동의장으로 선출됨

(2) 민화협 제11기 집행위원회

- 일시와 장소 : 월 1회 민화협 사무실에서 진행함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내용 : 민화협 사업 전반에 관한 검토, 결의, 제안 등

2) 민화협 <회원단체간담회>

- 일시와 장소 : 10월 23일(수) 오전, 민화협 대회의실
- 주제 : 2019 민화협 회원단체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
- 취지 : 회원단체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프로그램 개발
- 대상 : 경실련 통일협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평통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YMCA
- 참석 : 본회 김정수 상임대표

3) 민화협 여성위원회

(1) 1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3월 20일(수) 14:00, 민화협 회의실(마포구 신한디엠빌딩 15층)
- 안건 : 전차회의 보고, 제11기 여성위원장 선출, 2019년 사업계획 논의 등
※ 김정수 상임대표가 민화협여성위원장(공동)으로 선출됨

(2) 2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4월 8일(월) 16:30, 민화협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내용 : 민화협 여성위원회 2019 여성평화포럼 기획회의 등

(3) 북한인권 관련 여성·평화 활동가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5월 22일(수) 11:0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

- 참석자 : 여성위원회 전현직 위원장, 여성위 실무자 등
- 내용 : 북한인권 현안 및 보호방안 논의

(4) 민화협 2019 여성평화토크쇼

- 주제 :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 길찾기”
- 일시와 장소 : 5월 28일(화) 14:00~16:00, 스페이스 라온
- 참석 : 김정수, 김경선
- 프로그램 (진행 : 최광기 토크쇼 전문진행자)
 - ① 주제발표 : 남-북-미 평화프로세스의 가능성 (김준형 한동대 교수)
 - ② 토론
 - a.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성의 역할은?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b. 남북여성의 정치·경제 역량강화 방안 (박현선 이화여대 교수)
 - c.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권미혁 국회의원)
 - d.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언론의 역할 (신나리 오마이뉴스 기자)

(5) 김홍걸 대표상임의장과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다

- 일시와 장소 : 12월 13일(금) 오전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가운
- 참여 : 민화협 여성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와 실무자 등 15명
- 본회 참석 : 김정수, 김경선

1-5. 시민평화포럼

※ 시민평화포럼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회는 단체회원으로 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1) 운영위원회

- 일시 : 2019년 4/24, 8/28 12/15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 시민평화포럼 북미정상회담 관련 시민평화포럼 운영위 단체 공동성명서

- 일시 : 2월 25일(월)
- 제목 :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 참가단체 : 평화여성회 등 00개 단체 참여

3) 시민평화포럼 제10차 총회

- 일시와 장소 : 3월 15일(금) 16:00-18: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안건 : 2018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 임원 추가, 2019년 사업계획, 예산승인, 정 관수정팀 구성 등

4)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준)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4월 2일(화) 13:00-18:00, 남산 유스호스텔
- 참석 : 여혜숙 공동대표, 김정수 상임대표
- 발족식 : 4월 30일(화)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5) 서울 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

- 일시와 장소 : 4월 3일(수) 15시~16시, 서울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18층)
- 주최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
- 주관 : 참여연대
- 취지 : 북미 대화, 남북 교류협력, 대북 제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단과 입장 발표 남, 북, 미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향후 활동계획 발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우 (NHK,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
 - ① 발언 1.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② 발언 2.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 ③ 발언 3.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he End the War!! 캠페인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국제사회에 바라는 제안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④ 발언 4.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제안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6)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 주제 : 2019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 일시와 장소 : 6월 12일(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 ①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② Women Mobilizing to end War, Korea Peace Now Campaign 소개 및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역할(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③ 평화공존의 시대,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④ 남북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사례(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⑤ 2019 핵확산금지조약(NPT)회의 참가와 방미활동 (황수영, 평화국축센터 팀장)

7)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27일(목)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세종대왕상 앞)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여성단체 발언)
- 내용 : 6월 29일(토)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o 사회 :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o 발언1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o 발언2 : 김남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 o 발언3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o 공개서한 낭독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신상선 (평화3000 간사)

8) 시민평화포럼 비전워크숍

- 일시와 장소 : 10월 11일(금),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 ① 한반도 평화 어디로 가고 있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정육식: 평화네트워크)
 - ② 시민평화포럼 어디로 가야 하나: 활동방향과 전략
(모두 토론)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김경선 활동가

9)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 일시와 장소 : 10월 22일(화) 오후,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프로그램
 - (1) 세션1 : 한미동맹의 현주소 (사회: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① 변화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부재)(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 ③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점(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④ 주한미군 주둔경비 현황과 문제점(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2) 세션2 :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사회: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토론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1-6. 통일교육협의회 여성위원회, 실무자워크숍

1) 통일교육협의회 제23차 정기총회

- 일시와 장소 : 2월 15일(금) 16:00-18:00,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
- 참석 : 여혜숙
- 안건: 2018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승인, 임원선출 (상임의장: 송광석), 2019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

2)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사업

- 3월 18일(월) 회원단체지원금 신청 (지원금 7,000,000원)
- 내용 :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트레이닝(7회차), 세대공감 평화기행 1회
- 회원단체지원금 700만원 승인

3) 여성분과 회의 (참석:여혜숙)

① 1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5월 10일(금) 11:00-12:00, 통교협 회의실
- 내용 : 평화통일기행 논의

② 2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7월 9일(화) 11:00-12:00, 통교협 회의실
- 내용 : 평화통일 기행 평가, 하반기 포럼 계획

4) 여성분과 토론회

- 주제 : 통일교육은 가정에서부터
- 일시와 장소 : 10월 1일(금) 15:00, 프란체스코 회관
- 참석 : 여혜숙(토론), 김정아, 시명수, 김경선

5) 여성분과 평화통일 기행

- 일시와 장소 : 6월 18일(화) 파주 캠프그리브스
- 참석 : 여혜숙, 손희정, 이현숙, 최영숙외 1인, 김정자 (6명)
- 특강 : 박현선

6) 회원단체 간부, 실무자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11월 14일(목)~15일(금), 고성 금강산 콘도와 그 주변
- 참석 : 여혜숙

7) 회원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12월 10일(화)-11일(수), 제주도 일대

- 참석 : 김경선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사드배치반대 전국행동
- 2-2. 4.27 평화인간띠잇기 운동
-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4.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 2-5 2019 평창평화포럼
- 2-6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 2-7 기타

2-1. 사드배치반대 전국행동

특별한 활동 없었음.

2-2. 4.27 평화인간띠잇기 운동

1) 4.27 민(民) 평화 손잡기 전국본부

- 추진위원 : 김정수, 여혜숙, 최정남 (강원도 추진본부 공동대표)

(1) 강원도지역본부발족식

- 일시와 장소 : 3월 16일(토) 14:00, 춘천시청

- 참석 : 여혜숙, 최정남

(2) 결의대회 및 기자간담회

- 일시와 장소 : 3월 26일(화) 10: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최정남

(3) 4.27 민(民) 평화 손잡기 영등포 추진본부 결성하여 진행 (여혜숙)

- 일시와 장소 : 4월 27일(토) 9:00~17:00, 강화 교동

- 참석 : 김성은, 김정수, 여혜숙, 김경선, 이영분, 최정남, 시명수

2) 4.27 DMZ 국제평화회의

※ 4.27 민(民) 평화 손잡기 철원지역 사전행사 국제평화회의 중 여성평화세션 진행

- 주제 :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민의 평화회의

- 일시 : 4월 25일(목)~4월 27일(토)

- 장소 :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 한탄리버스파호텔

- 주최 : (사)평화의 씨앗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성공회대학교, 강원대학교 통일 강원연구원,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 주관 : 국경선평화학교 / 한국YMCA전국연맹

- 후원 : 강원도 / 철원군
- 목적 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민(民)의 참여와 역할 모색
 - ② 국제(남북미중)정치 평화협상 성공을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
 - ③ 평화지역 강원도 DMZ의 평화적 발전 방향에 대한 학문적 토론 활성화
- **여성평화세션**(주제: 민의 평화운동의 중요성: Women Cross DMZ Movement)
 - ① 한반도 평화와 국회의 역할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② 남교류와 여성들의 목소리 : 김정수 상임대표(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③ 민이 중심이 된 인도적 지원활동과 평화를 향한 여성들 : 장미란 위원장(한국 YWCA 평화통일위원회)
 - ④ 여성주의 평화운동과 민의 국제연대 : 조영미 집행위원장(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 본회 참석 : 김성은 이사장, 김정수 상임대표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8기 : 2019년 8월 31일(토)까지 , 19기 : 2019년 9월 1일(일)부터~

1) 운영위원회 (참석: 여혜숙)

- (1) 1/16(수) 10:30-12:30 ,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2) 3/6(수) 10:00-12:00,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3) 6/28(금) 16:00-18:00,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4) 9/9(월) 10:30-12:30,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5) 12/18(수) 10:00-12:00,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
- (6) 5/11(토)-12(일), 운영위원회 워크숍, 중국 대련

2) 여성분과위원회

- 위원장 : 여혜숙, 간사: 조영주, 상임위원: 김정수, 김귀옥
- 역할 : 분기별 정책건의문 내용 토론과 작성
 - 1/4분기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경제 증진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여성네트워크 구축 방안
 - 2/4분기 :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를 위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방안
 - 4/4분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여성 거버넌스 구축 방안

3) 여성평화포럼

- 공동대표 : 여혜숙, 김숙임
- 포럼회원 : 김정아, 김정수, 김귀옥, 김지선, 김희정, 서민순, 이권명희, 최선희
 - (1) 5월 22일(수) 15:00-18:30, 남학당
 - 주제 : 여성·평화·통일 운동 돌(아)보고 내다보다 (두 번째 이야기)
 - (2) 12월 11일(수) 15:00-18:30, 민주평통 사무처 소회의실

주제 : 지자체 평화통일사업, 여성은 어디에?

4) 민주평통 라운드테이블

- 일시와 장소 : 2월 19일(화) 10:30, 프레스센터
- 참석 : 김정수
- 주제 : 남북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중심으로

5) 민주평통 정책포럼

- 일시와 장소 : 3월 6일(수) 10:00, 세종호텔
- 참석 : 여혜숙

6) 2019 여성지도자 초청 대토론회

- 일시와 장소 : 4월 18일(목) 14:00-17:20, 백범기념관
- 참가단체 :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2세션 사회 : 여혜숙, 토론 : 김정수
- 참석 : 김경선

7) 탈북이탈주민 지원 단체 대표자 세미나

- 일시와 장소 : 6.5(수) 10:30-12:30, 민주평통 대회의실
- 사회 : 여혜숙

2-4.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 개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9월 평양선언에서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2019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함. 이후 대북제재를 이유로 남측 정부는 합의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함.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물 설치를 명하게 됨.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6.15 실천 남측위, 민화협,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회 등이 모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함. 평화를만드는여성회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1)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1)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7월 18일(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2)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남북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10월 7일(월) 오후 2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최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 주관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 기업협회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3) 긴급기자회견 :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 일시와 장소 : 10월 28일(월)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
- 주최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 내용
각계연설(민화협 대표상임의장, 6.15 남측위 상임대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평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 이현수 공동대표)

2) 범국민운동 여성단체 활동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11월 14일(목)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
- 주요내용 : 여성 1,300명이 참여한 여성 1,000인 선언을 발표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정부에 촉구하며, 미국과 유엔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 것을 요구하다.
- 사회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발언 : 김성은 평화여성회 이사장, 장미산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000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 참석 : 김성은 이사장, 김정수 상임대표

2-5. 2019 평창평화포럼 (2월9일~2월11일, 평창)

세션4 평화교육

사회 : 여혜숙

세션5 여성단체들 조직과 운영

- 일시와 장소 : 2월 10일(일) 오후 16:00~
- 배경과 목적 : 여성단체들은 2000년 유엔안보리결의 1325(여성평화안보) 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1995 베이징 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다수의 국제의제에 성평등이 반영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세션에서 다음 주제들을 토론하여 여성단체들의 행동의제를 개발하고자 함
 - ①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등 남반구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우선순위
 - ② 2020 여성준의 평화협정 캠페인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행동
 - ③ 여성차별철폐협약 관련 한국의 성평등, 베이징+25, 유엔안보리결의 1325+20, SDGs 등
- 공동주관단체 :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여성평화건기 국제조직위원회
- 사회 : 평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 발표 :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회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플로렌스예부오 물리 SDGs 케냐포럼, 누리아 코스타 레오나르도 멕시코 여성네트워크, 크리스틴 안 (WCD 미국 국제조직위원회) 등

2-6.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1) 준비위원회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4월 2일(화) 13:00-19:00, 남산유스호스텔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 내용 : 전국시민회의의 방향성, 2019년 사업계획 등 보고와 논의

(2) 창립총회

- 일시와 장소: 4월 30일(화) 10:30, 프레스센터
- 참석 : 김정수, 김경선, 이권명희

(3)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와 장소 : 6월 3일(월) 16:00, 흥사단 3층 강당
- 참석 : 여혜숙
- 내용 : 권역별 사회적 대화 진행사항, 미국 (LA, 시애틀) 사회적 대화 진행사항 보고, 공동집행위원장 승인

(4) 퍼실리테이터 심화교육

- 일시와 장소 : 5월 17일(금) 11:00-18:00, 흥사단 3층 강당

- 참석 : 여혜숙, 이권명희, 김지선
- 신좌섭 교수 진행

(5) 퍼실리테이션 양성 교육 (1박2일, 신좌섭 교수 진행)

- 일시와 장소 : 6월 3-4일(1박2일), 6월 8-9일(1박2일), 남산 유스호스텔
- 6월 3-4일 참석 : 손서정, 손효정, 이향림
- 6월 8-9일 참석 : 이권명희

2-7. 기타

1) 서울여성가족재단

- 일시 : 2월 14일(목) 14:00
- 참석 : 김정수
- 내용 : 서울시여성단체신년인사

2) 남북여성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월 22일(금) 14:00, 여성정책연구원
- 안건 : 남북여성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방향
 - * 연구보고서 : 남북관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 본회 참석 : 김정수, 김귀옥

3) '한반도 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한 쿼텀 전략 심포지엄'

- 일시와 장소 : 2월 27일(수) 09:30, 서울대학병원
- 토론참석 : 김정수

4) 여성재단 2019 100인 기부 릴레이 참여

- 일시 : 5월 9일(목)
- 참가 : 김경선,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지선, 모명숙, 박인혜, 박혜림, 손희정, 여혜숙, 오선자, 유정원, 이경민, 이영분, 이영자, 이현숙, 정명하, 정용수, 정지은, 정태효, 정현기, 정혜진(총 22명)

5)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신임 홍승아 비서관)과 여성단체 대표들 오찬간담회

- 일시와 장소 : 6월 13일(목) 12:00, 을지로 라칸티나
- 참석 : 김정수 대표 외 여성단체연합 대표 들
- 내용 : 신임 여성정책비서관과 여성계 현안 공유 및 정책 제안 (1325 국가행동 계획 등)

6) 고(故) 이희호 여사 여성계 추모행사 및 조문

- 일시와 장소 : 6월 13일(목) 17:00,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참석 : 김성은 이사장, 김정수 상임대표, 박현선 이사 등

7) 평화시대로의 전환 ‘수원 군 공항’ 해법 찾기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6월 18일(화) 14:00, 수원시 더함파크 1층 대회의실
- 주최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사회)

8) 2020 서울 세계평화회의 개최를 위한 의제 발굴 연속 기획세미나

- 일시와 장소 : 6월 20일(목) 15:00,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 : 김정수 (발표1)
- 내용 : 여성과 평화 영역, 굵한 주민의 고통으로부터 상처 받을 가능성, 국제평화, 도시평화를 위한 평화의 개념에 대한 인식 확장 시도 등

9) 한강하구 평화포럼

- 일시와 장소 : 6월 21일(금) 14:00-17:30, 교동교민회관
- 참석 : 김성은 이사장, 여혜숙(토론)

10)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주최 시민공공외교 관련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9월 30일(월) 한국언론재단 19층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등
- 내용 : 공공시민외교 2.0: NGO 국제협력 필욫경 및 글로벌 트렌드(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공공외교에서 한국시민사회 역할 현황 및 개선방향: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심(이성훈 경희대 공동대학원 특임교수) 등

11) 우분투재단 관계자 미팅

- 일시와 장소 : 6월 28일(금) 오후, 여성미래센터 커피숍
- 참석 : 김정수 대표,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임지운 우분투재단 사무국장
- 내용 : 사무금융노조 출연 사회공헌재단 우분투 재단 사업방향에 대한 자문과 여성평화운동 지원 요청 등

【6】부설기구

1. 갈등해결센터

<p><2019년 사업계획></p> <p>1) 구성: 센터장 (여혜숙), 전문위원 (김정아, 이덕경, 조영희)</p> <p>2) 사업방향과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의 조직정비를 해 나가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해 나간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평화·갈등해결 방법론을 공부하고 내용을 축적해 나간다. <p>3) 세부사업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2030 청년들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상별 평화통일 세부 교안 작업을 한다.- 평화·통일·갈등해결 교육과 활동 확대를 위한 강사진을 구성한다.- 평화통일 교육 홍보 사업 (교육청, 지역단체, 학교 등)- 타 평화·교육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간다.

1. 조직

1) 구성

- 소장 : 여혜숙
- 운영위원 : 김지선, 박인혜, 여혜숙
- 전문위원 : 김정아,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권명희, 이향림, 이현숙, 최영애 (12명)

2. 회의

1) 운영위원회 (격월 진행)

① 1차

- 일시 : 2월 25일(월) 17:00-19:00
- 참석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내용 : 2019년 사업검토, <평화통일 교육 연구모임> 구성, 운영위원 추가 건, 갈등해결센터 운영규정 검토, 센터 홈페이지 수정 건

② 2차

- 일시와 장소 : 4월 15일(월) 17:00-19:00, 본회 회의실
- 참석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김경선

- 논의 : 통교협 프로젝트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과정 기획
 - ㄱ. 평화통일교육 진행자과정 (총21시간)
 - ㄴ. 세대공감 평화통일기행: 9.5(토) 파주, 연천 지역

③ 3차

- 일시와 장소 : 7월 4일(목) 21:30-23:20, 본회 회의실
- 참석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 : 평화통일교육 진행자과정 수료식 준비, 후속모임 (한 달에 1번, 신청자 3명 이상일 때 진행)

④ 4차

- 일시와 장소 : 9월 3일(화) 19:30-21:30, 합정동 카페 더 브릿지
- 참석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 : 연구팀 9월 주제 선정 (이덕경/신리씨클), 평화여성회 평화교육 영역 검토, 갈등해결센터 교육 주력 대상 모색

⑤ 5차

- 일시와 장소 : 11월 4일(월) 19:00 ~21:00, 안녕 낯선 사람
- 참석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 : 2019년 조직·사업평가, 2020년 사업 아이디어 모으기

⑥ 6차

- 일시와 장소 : 12월 4일(수) 16:00~18:00 본회 회의실
- 참석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논의 : 2020년 조직, 사업계획

2) 평화평화통일교육 연구팀

① 1차

- 일시와 장소 : 3월 20일(수) 18:30 - 20:0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김희은, 이현숙, 손희정, 이권명희, 손서정, 박인혜, 김은희, 김경선, 김정수, 여혜숙 (10명)
- 논의 내용 : 다양한 대상에 활용할 수 있는 교안작업. 시연과 연구를 통해 추가 매뉴얼 작업

② 2차

- 일시와 장소 : 4월 22일(월) 18:00-20:0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김희은, 이현숙, 손희정, 이권명희, 손서정, 박인혜, 김경선, 여혜숙, 최영

애, 이향림 (10명)

- 논의 내용 : 2030 서울시 2030 청년매뉴얼 제6단원 시연과 평가, 5월~7월까지
는 평화통일교육 진행자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팀 모임을 대체

③ 3차

- 일시와 장소 : 8월 19일(월) 18:30~20:0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김희은, 이현숙, 이권명희, 손서정, 박인혜, 김다미, 여혜숙 (7명)
- 주제 강의 : 성평등/성인지 감수성의 쟁점
- 강사 :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④ 4차

- 일시와 장소 : 9월 24일(화) 18:30~21:0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김희은, 박인혜, 이권명희, 손서정, 여혜숙
- 내용, 진행: 공동체를 세우는 신뢰서클(평화형성 서클), 이덕경

⑤ 5차

- 일시와 장소 : 10월 29일(화) 18:30~21:0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김다미, 송덕순, 박인혜, 서민순, 이덕경, 이권명희, 이향림, 여혜숙
- 내용, 진행: 평화교육, 손서정

⑥ 6차

- 일시와 장소 : 12월 4일(수) 18:30~21:0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이권명희, 여혜숙
- 내용, 진행 : 쉽게 보는 미술이야기, 손희정

3. 교육활동

1) 평화통일교육 진행자과정 (30명 참석, 22명 수료)

☞ *본회 평화·통일교육 사업 보고 참조*

4. 외부 교육 보고

1) 양주 상패초등학교 5학년 13명

- 일시 : 7월 3일(수) 7월 10일(수) 2교시, 총 2회 진행
- 진행 : 박인혜
- 주제 : 갈등해결 이해와 대처방안

2) 김포 신곡중학교 3학년 5개 반(동시 진행)

- 일시 : 7월 12일(금) 6,7교시

- 진행 : 김지선,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여혜숙
- 주제 : 회복적 생활교육

3) 평화사회종합복지관 의사소통 교육

- 일시 : 8월 21일(수) 14:00-16:00
- 대상 : 주민과 직원
- 진행 : 박인혜

4)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이룸학교

- 일시 : 9월 9일(월), 9월 19일(목) 13:00~15:00, 총 2회
- 진행 : 박인혜
- 주제 : 회복적 생활교육

5) 서울시민대학 서·동남권 시민 아카데미

- 일시와 장소 : 8월 21~10월 2일(매주 수) 19:00~21:00, 총 6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진행 : 여혜숙
- 주제 :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6) 민주화기념사업회 '민주주의 현장체험 해설사 양성과정'

- 일시, 장소 : 7월 18일(목) 14:00~16:00, 대전KT인재개발원
- 일시, 장소 : 8월 19일(월) 10:30~12:30, 여수 아이쿱 생협 교육장
- 진행 : 여혜숙

7) 영등포 마을활동가 교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일시 : 12월 9일(월), 13일(금) 13:00 ~ 17:00, 서울문래청소년센터, 카페 봄봄
- 진행 : 여혜숙

5. 외부 교육·활동 참여

- 흥민통 평화통일교육 지도사 캠프, 8/23(금)~25(일), 인제생명평화동산
참석 : 김다미, 김정아, 손서정, 여혜숙, 이김현숙
-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퍼실리테이션 교육, 남산 유스호스텔
6/4,5 손서정, 손희정, 이향림 6/8,9 이권명희

6. 갈등해결센터 활동 평가

1) 센터의 조직정비 토대 마련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격월 1회, 총6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 활동에 대한 체계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였다. 평화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구성을 하고 월1회의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 평화·갈등해결 방법론 연구 및 축적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구성과 평화통일교육 진행자과정 개설을 통해 평화·갈등해결에 대한 교육방법론을 학습하였고, 평화·통일교육 수행을 위한 강사단을 꾸리는 것을 모색하게 되었다.

3) 교류 및 연대

본회 주최의 토크쇼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였고, 외부 평화·교육 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평화 프로그램 및 사회적 대화 퍼실리테이션 활동에의 참여를 넓혀 나갔다.

4) 향후 과제

개발된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방법론을 토대로 대상별 교육 매뉴얼 작업 추진과 그에 적합한 맞춤형 강사단을 구성해야 하며, 지역사회 단체 또는 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 홍보사업이 필요하다.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p><2019년 사업계획></p> <p>1) 구성 : 원장 김귀옥</p> <p>2) 사업 목표 첫째, 2019년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여평연 졸업)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와 활동 둘째, 2020년 여평연의 본격적 활동과 청년 평여 사업 셋째, 여성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아시아, 세계 평화와 통일 전망과 방법론 수립 넷째, 여성 세대별·계층별·직종별, 평화 감수성 형성과 평화적 방법론 연구 및 개발</p> <p>3) 2019년 주요 사업 - 상반기 주력 사업--조직 정비와 여평연 자체 후원 체계 모색 - 여성평화 관련 저서 출간 - 학술행사...국내 1회 이상 - 다른 NGOs와의 연대 활동 - 여성 청소년 및 청년의 평화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등 활동 증진 방안 모색 (지속 사업) - 여성평화 프로젝트 수행 ; 통일부 사업에서 여성주의 평화,통일 아젠더 설정 노력</p>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연구 사업 모색
 - 대학들의 평화 관련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 여성주의 평등 사업개발 및 연대 활동

4) 예산
 - 프로젝트 수행 및 자체 후원체계 수립

1. 조직

1) 구성

- 연구원 이사회 (김성은, 강명숙, 김귀옥, 김성보, 서승, 송연옥, 안자코 유카, 유정애, 정경훈, 조영주, 홍승희)
- 연구원장 (김귀옥), 부원장 (조영주), 연구위원 (김성경, 김정아, 박현선, 손서정, 유진아, 윤보영, 이나영, 이애덕, 최수지)
- 연구원 간사 (김태원)
- 연구원 후원회원 (강성천, 강지윤, 김동환, 김선일, 박배균, 박병인, 박선옥, 송혜련, 이충진, 정경희, 지혜경, 천정환, 최은영, 허영란)
- 1회 후원회원 (윤택림, 조규태)

2. 회의

1) 연구원 이사회 및 연구위원 회의

① 제1회 연구원 이사회 및 연구위원 합동회의

- 일시와 장소 : 6월 12일(수) 18:30~21:00, 여성미래센터
- 참석 :
 본회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이사 : 김성은(이사장), 김귀옥, 조영주, 강명숙, 서승(이상 호칭 생략)
 연구위원 : 김정아, 박현선, 손서정, 유진아, 윤보영(이상 호칭 생략)
 임시 간사 : 김경선
- 내용 : 상견례 겸 연구원 운영규약 개정 보고 및 이에 따른 2019년 사업 검토 및 사업 토의 및 확정, 연구위원 추가 구성 필요성 논의 및

② 제2회 연구원 연구위원 회의

- 일시와 장소 : 8월 19일(월) 정오, 여성미래센터 청산홀(1층)
- 참석 : 김귀옥, 김성경,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손서정, 윤보영, 이애덕(가나다 순); 활동가 - 김경선, 김태원
- 내용 : 본회 활동 보고, 긴급토론회(8월 16일 개최) 평가 및 향후 토론 및 연구 활동 방향 논의, 9월부터 진행될 수요영화제 관련 회의 결정, 연구위원 및 연구원 후원회원 확대 방안

③ 제3회 연구원 연구위원 회의

- 일시와 장소 : 12월 11일(수) 18:30-21:00, 에코밥상(식당 회의실)
- 참석 : 김귀옥, 김성경, 김정아, 손서정, 윤보영, 이애덕, 최수진(가나다 순); 간사-김태원
- 내용 : 본회 활동 보고, 2019년 연구원 사업 보고, 평가 및 성찰, 2020년 사업 계획 등

2) 연구원 워크숍

① 제1회 연구원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8월 19일(월) 12:00-14:3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발표 : 윤보영 선생님(본연구원 연구위원)의 “페미니즘 시선에서 바라본 평화: 『여성과 평화』 저널을 중심으로”

② 제2회 연구원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11월 6일(수) 오후 6:30,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발표 : 정현백 선생님의 "평화·통일 문제를 둘러싼 몇 가지 단상"

③ 제3회 연구원 워크숍

- 일시와 장소 : 1월 18일(토)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청산홀(1층)
- 발표 : 문아영 선생님(평화모모 대표)의 “평화운동은 청년을 누구라 하는가?”

3) 긴급토론회: “한일갈등의 분석과 평화적 해법 모색”

- 일시와 장소 : 8월 16일(금) 16: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순서 : 좌장 김귀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한성대 교양과정 교수)

발표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HK교수)

송연옥(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명예교수)

토론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재정(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 보도 : 『가톨릭신문』 08.25(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15900)

4) 수요영화제

① 제1회 수요영화제 : “우리집 이야기”

- 제목 : 북한식 사회주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일시와 장소 : 2019. 9. 18 19:00~21:3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B1)
- 진행 : 김정아, 강사 : 박현선
- 참석 : 김경선, 김귀옥, 김민영, 김정수, 김태원, 문혜지, 성동현, 손서정, 신정아, 이권명희, 이선결, 이수호, 이애덕, 전여울, 정경훈

② 제2회 수요영화제 :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 제목 : 곡예사 꿈을 찾아가는 북녘 여성 노동자
- 일시와 장소 : 2019. 10. 16 18:30~21:30 스페이스 36.5
- 진행 : 이나영, 강사 : 김성경
- 참석 : 강미라, 김경선, 김귀옥, 김남기, 김정수, 김정아, 김태원, 손서정, 송혜련, 여혜숙, 이권명희, 이희선, 임지연, 전여울, 정경훈, 하수정, 홍혜정

③ 제3회 수요영화제 : “사랑의 샘”

- 제목 : 사랑과 지성, 여성의 힘으로 빛나는 강서약수
- 일시와 장소 : 2019. 11. 20 18:30~21:30 스페이스 36.5
- 진행 : 이애덕, 강사 : 조영주
- 참석 : 김경선, 김귀옥, 김정수, 김태원, 박정직, 송혜련, 여혜숙, 이나영, 전여울, 정경훈, 조영주, 최수지, 최안진경

④ 제4회 수요영화제 : “분조의 주인”

- 제목 : 전기와 비료가 떨어진 농업을 다시 살리는 여성 농민
- 일시와 장소 : 2019. 12. 18. 18:30~21:30, 스페이스 36.5
- 진행 : 김귀옥, 강사 : 윤보영
- 참석 : 강미라, 고유경, 김경선, 김남기, 김정수, 김정아, 김태원, 송연옥, 여혜숙, 원용석, 이권명희, 이나영, 이석준, 이애덕, 전여울, 정경훈

2019년 결산보고

1. 본 회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회비수입	31,600,000	28,421,785		28,421,785	사업비	7,800,000	12,836,640		37,836,640
회원	21,600,000	20,421,785		20,421,785	회의비	800,000	812,750		812,750
이사	10,000,000	8,000,000		8,000,000	평화통일사업	2,000,000	4,524,610	25,000,000	29,524,610
후원금	10,500,000	14,323,660		14,323,660	재정사업	1,000,000	0		0
개인	7,000,000	12,803,660		12,803,660	연대사업	2,000,000	2,830,000		2,830,000
재정모금	3,500,000	1,520,000		1,520,000	부설기구	2,000,000	4,669,280		4,669,280
참가수입	100,000	0		0	갈등해결센터	1,000,000	795,440		795,440
자료제공	100,000	90,000		90,00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00,000	3,873,840		3,873,840
잡수입	4,299,019	2,185,082		2,185,082	인건비	24,850,000	23,608,590		23,608,590
자입금		1,000,000		1,000,000	업무추진비	3,600,000	3,600,000		3,600,000
부설기구	2,000,000	9,239,415		9,239,415	인건비	21,250,000	20,008,590		20,008,590
갈등해결센터	1,000,000	2,096,037		2,096,037	운영비	12,570,000	13,496,516		13,496,51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00,000	7,143,378		7,143,378	관리비	6,500,000	7,244,911		7,244,911
					복리후생비	2,600,000	1,956,670		1,956,670
사업후원1(여가부)			18,000,000	18,000,000	사무비	2,120,000	2,657,325		2,657,325
사업후원2(농고협)			7,000,000	7,000,000	통신비	1,000,000	831,910		831,910
					잡비	350,000	805,700		805,700
					자입금반환		1,000,000		1,000,000
					미지급금	3,150,000	0		0
					자입금	1,550,000	0		0
					연대회의비	1,600,000	0		0
					적립금	1,500,000	1,200,000		1,200,000
					퇴직적립금	1,500,000	1,200,000		1,200,000
					예비비	500,000	0		0
소계	48,599,019	55,259,942	25,000,000	80,259,942	소계	50,370,000	52,141,746	25,000,000	77,141,746
전년이월금	1,770,981	1,770,981		1,770,981	차년 이월금		4,889,177		4,889,177
누계	50,370,000	57,030,923	25,000,000	82,030,923	누계	50,370,000	57,030,923		82,030,923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인선위원회 구성 : 김정아, 이나영, 박인혜, 손서정, 김경선
- 인선위원장 : 김정아

- 임원 선출 (안)
 - 공동대표 : 김정수 (상임), 여혜숙
 - 연임이사 : 김귀옥, 김정수, 박현선,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 신임이사 : 백미순
 - 회계감사 : 안수경

○ 2020년 임원 임기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김성은(이사장)	2018~2020		
	김귀옥	2020~2022	연임	
	김정수	2020~2022	연임	
	김지영	2018~2020		
	김정아	2018~2020		
	박현선	2020~2022	연임	
	백미순	2020~2022	신임	
	여혜숙	2020~2022	연임	
	이나영	2020~2022	연임	
	조영희	2020~2022	연임	
	한정숙	2020~2022	연임	
상임대표	김정수	2020~2022	중임	
공동대표	여혜숙	2020~2022	중임	
감 사	안수경	2020~2022	신임	
	박유희	2018~2020		
부설기구	소장 여혜숙	2019~2021		
	원장 김귀옥	2019~2021		

2019년 모범회원상

“평화미소상”

수상자 : 손서정 회원

◎ 모범회원 선정 이유

1. 손서정 회원은 2019년 본회의 프로그램(워크샵, 토크쇼), 갈등해결센터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훈련과정,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워크샵과 북한영화 보기 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2. 손서정 회원은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평화교육자로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여성-평화-교육을 상상하고 담론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교육활동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소통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만들기, 평화교육의 현장을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손서정 회원은 늘 밝고 환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생기를 전달하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2020년 사업계획안

2020년 사업기조와 방향

2020년은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로서 여성평화운동은 한반도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아시아의 군사주의를 저지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동시에 2020년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여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로 북경행동강령 25주년,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 20년, “No One Leave Behind (아무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는 기치로 2030년을 목표로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5년을 기념하여 제 6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가 ‘여성, 평화, 발전’으로 수렴되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2020년에 평화여성회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성평등한 한반도 비전을 구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평화만들기 활동

2020년은 국내외적 차원에서 여성과 평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아울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정세와 현안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한 논평과 성명서 등 입장문을 발표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21대 총선 대응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법, 제도, 정책 제안활동
-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2.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남북여성 협력 기반 조성 활동

남북여성교류는 지난 해 북미 하노이협상 결렬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성평화운동은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본회는 2020년 글로벌 여성 여성평화운동의 기조에 발맞춰 동아시아의 여성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여성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6.15 여성본부, 민화협 여성위원회 등 연대활동에서 리더십 발휘

- WPS 글로벌 의제의 동아시아 여성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북한여성들과의 협력 모색

3.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2020년은 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이 마무리되고 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해이다. 평화여성회는 여성가족부 1325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 활동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내실화와 여성, 평화, 안보(WPS) 글로벌 의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별히 2018~19년에 수행한 WPS 의제 관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1325 국가행동계획 교육방법론 수립과 대중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여성.평화.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WPS 글로벌 의제의 한반도 평화과정에의 적용을 위한 콘텐츠 발굴
-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적 확산 사업

4.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연대활동

2019년 한국여성평화운동은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과 연대하여 한국여성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했다.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기획, 콘텐츠 발굴, 참여의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2020년에도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연대 및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참여 (네트워크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전국여성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평화협정과 여성참여 사례연구 및 학습
-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공공외교 참여
-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동아시아협 의제 활동 등

5. 인간안보와 다자안보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전개

2019년 하반기 한국정부는 지체된 남북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세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바탕으로 한 국방비 증강,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미동맹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동아시아의 군사화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와 평화주의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불가능한 바, 2020년에는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국내외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국방계획 수립 촉구 활동
-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군축 운동 전개

6.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을 전개

2019년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평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20년에는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과정과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담론 생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여성평화 연구자 워크숍
- 『여성·평화』 연구지 복간(6호)
- 여성평화 독서 모임 등

7. 여성평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갈등해결센터는 2019년 진행한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양성프로그램의 성과를 이어 받아 2020년에도 여성평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대상별 평화통일교육 매뉴얼 개발
- 참여활동을 촉진하는 진행(퍼실리테이션) 방법을 도입한 토크쇼 개발

8. 회원참여 기반 조직역량 및 홍보활동 강화사업

본회의 활동에 지지하고 참여하는 회원들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

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 회원 및 재정 확대사업 진행
- 평화기행, 평화캠프, 평화독서모임 등 회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Facebook 기반 홍보활동 강화 등

9. 특별사업 :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사업

1987년 3월 28일 창립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2022년 창립 25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 지난 25년의 역사를 한반도 평화과정의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남북여성협력의 역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여성평화역량과 여성평화이론의 현재를 점검하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0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 김성은

- 이 사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백미순,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1-3. 운영위원회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김경선(활동가)

3) 내용 : 매주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1) 역할 :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안한다.

2) 구성

- 위원 : 김정수, 고유경, 안김정애 및 구성 중

2-2. 평화여성회 25주년 특별위원회

1) 역할 : 2022년 평화여성회 25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자료를 정리한다.

2) 구성

- 위원 : 구성 중

【2】 평화통일 사업

1.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평화만들기 활동

-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21대 총선 대응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법, 제도, 정책 제안활동
-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2.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남북여성 협력 기반 조성 활동

- 6.15 여성본부, 민화협 여성위원회 등 연대활동에서 리더십 발휘
- WPS 글로벌 의제의 동아시아 여성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북한여성들과의 협력 모색

3.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 WPS(여성.평화.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WPS 글로벌 의제의 한반도 평화과정에의 적용을 위한 콘텐츠 발굴
- 1325 국가행동계획 대중적 확산 사업

4.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연대활동

-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연대 및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참여
(네트워크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전국여성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평화협정과 여성참여 사례연구 및 학습
-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공공외교 참여
-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동아시아협 의체 활동 등

5. 인간안보와 다자안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전개

-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국방계획 수립 촉구 활동
-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군축 운동 전개

【3】 정보 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4】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5】 재정 사업

1. 꽃감 판매 등

【6】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네트워크 활동)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6.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1-7. 통일교육협의회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2.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 2-3.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2-3. 기타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 아지역협의회 - 올란바타르 프로세스
- 3-2.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 (국내캠페인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와 연계 활동)
- 3-3. 기타

【7】 부설 갈등해결센터

1. 조직

- 센터장 : 여혜숙, 부소장 : 김지선
-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 기획자문위원 : 김희은, 이권명희
- 전문위원 : 김정아,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 매뉴얼팀 : 박인혜(팀장), 김정아, 김지선, 손서정, 여혜숙, 이덕경

2. 사업방향과 목표

- 정기적인 모임 운영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센터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센터의 활동이 구성원 각자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성과와 개인의 성취를 함께 추구하는 활동을 떠나가도록 한다.
- 새롭게 구성된 팀의 구성원들이 센터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지속적인 학습모임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히고, 평화통일교육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한다.

3. 세부사업 (안)

- 정기적인 학습모임에서 구성원들 간 새로운 내용과 방법론이 공유되고, 시도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전 ‘평화통일 교육 매뉴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별 평화통일 교육 관련 자료를 조사, 축적하고, 세부 교안 작성 등 센터 공통의 성과물을 만든다.
- 평화·통일·갈등해결 교육과 활동 확대를 위해 강사진과 진행자들을 구성한다.
- 교육청, 지역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 홍보 사업을 강화한다.
-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타 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평화·통일·갈등해결 활동을 활성화한다.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젠더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연구원 이사회 : 김성은, 강명숙, 김귀옥, 김성보, 서승, 송연옥, 안자코 유카, 유정애, 정경훈, 조영주, 홍승희
- 연구원장 : 김귀옥, 부원장 : 조영주
- 연구위원 : 김성경, 김정아, 박현선, 손서정, 유진아, 윤보영, 이나영, 이애덕, 최수지
- 연구원 간사 : 김태원
- 연구원 후원회원 : 강성천, 강지윤, 김동환, 김선일, 박배균, 박병인, 박선옥, 송혜련, 이충진, 정경희, 지혜경, 천정환, 최은영, 허영란
- 1회 후원회원 : 윤택림, 조규태

2. 사업계획

2-1. 연구원 구성 점검과 활성화 방안 필요

- 연구원 구성에서 협업과 소통의 구조 만들기
- 연구원 회원 배가 운동
- 기타 활성화 방안
- 회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활동

2-2. 『여성과 평화』 6호 제작

편집위원 구성 확정

- 편집위원장 : 김귀옥(원장), 부편집위원장 : 윤보영, 최수지, 편집간사 : 김태원
- 편집위원 : 김성경, 김정아, 박현선, 손서정, 유진아, 이나영, 이애덕, 조영주
- 원고 모집 : 2020년 2월~3월, 편집 : 4월~5월, 인쇄 및 배포 : 6~7월
- 기획안

① 저널 구성

특집: 페미니즘과 평화
에세이 및 자유기고문

② 글 모집 및 마감

- 2월 초순 글 모집 공고
- 4월 초순 글 마감
- 심사 및 보완, 편집, 출판 및 배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체 회원에 무료 배포, 일부 판매)

2-3. 연구원 워크숍 기획안

- 기본 방향 : 여성, 평화, 통일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론과 역사, 담론과 정책의 모색을 위한 독서 모임
- 워크숍 실행위원장 : 김성경, 부위원장 : 손서정, 김귀옥

- ①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김귀옥 저, 2019) 북 콘서트
 - 토론자 : 손서정, 최수지, 사회자 : 이나영
 - 일시 : 4월 1일(수) 저녁 7시 (장소 추후 확인)

- ②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 (이향규 저, 2019)
 - 발제자 : 이애덕, 유진아, 사회자 : 박현선
 - 일시 : 5월 6일(수) 저녁 7시 (장소 추후 확인)
 - 참고문헌 : 후아유 (이향규 저, 2018)

- ③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문학동네, 2015)
 - 토론자 : 윤보영, 김성경, 사회자: 김정아
 - 일시 : 6월 3일 (수) (장소 추후 확인)

- ④ 다큐멘터리 영화나 전시 감상과 나눔 (7월 초반)
 - 여성, 평화, 분단 등의 문제를 담은 영화, 전시 등을 확인

2-4. 본회와 연구원 기획 학술 심포지엄 개최

- 2020년 학술 심포지엄 : 11월 상반기 예정
- 주제 : 징병과 여성, 평화

2-5. 여성의 평화·통일 의식 제고를 위한 조사 사업

- 2020년에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 따라서 2020년에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음.
 - (1) 평화·통일교육자 모니터링, 및 집단 면접 조사
 - (2) 2020년 상반기, 2021년 여성 평화·통일의식조사를 위한 기획서 마련 및 수주 가능한 기관과의 회의

2-6. 기타 제안 사항

- 프로젝트 획득 방안 필요 및 모색
- 공적 기금을 활용하되, 연구원 회원 확충을 통한 회비가 기본이 되어야 함.
- 회원 충원이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본회나 연구회 하는 일이 좀 더 명확해지고, 홍보가 되어야 함.

2020년 예산(안)

1. 본회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목	2019년 결산	예 산	관	항 목	2019년 결산	예 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1,770,981	2,055,739	일반 회계	사업비	12,836,640	14,250,000
	회비	28,421,785	41,000,000		회의비	812,750	850,000
					평화통일사업	4,524,610	3,000,000
	회원	20,421,785	30,000,000		재정사업		2,000,000
					연대사업비	2,830,000	3,000,000
	이사	8,000,000	11,000,000		출판지원금		3,000,000
					부설기구	4,669,280	2,400,000
	후원금	14,323,660	22,600,000		갈등해결센터	795,440	1,200,00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3,873,840	1,200,000
	개인	12,803,660	18,600,000		인건비	23,608,590	37,200,000
					재정모금	1,520,000	4,000,000
	참가수입		500,000		업무추진비	3,600,000	7,200,000
					인건비	20,008,590	30,000,000
	자료제공	90,000	200,000		운영비	13,496,516	14,350,000
					관리비	7,244,911	7,500,000
잡수입	2,185,082	3,000,000	복리후생비	1,956,670	3,000,000		
			사무비	2,657,325	2,600,000		
차입금	1,000,000		통신비	831,910	900,000		
			잡비	805,700	350,000		
부설기구	9,239,415		차입금 반환	1,000,000			
			미지급금		1,550,000		
갈등해결센터	2,096,037		차입금		550,000		
한국여성평화 연구원	7,143,378		연대회의비		1,000,000		
			적립금(퇴직적립금)	1,200,000	1,800,000		
			예비비		205,739		
			차년이월	4,889,177			
합 계	57,030,923	69,355,739	합 계	57,030,923	69,355,739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2019년 성명서 목록
- 2019년 홍보자료
- 회원가입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2010년 1월 20일,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궐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회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회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최 및 통지) 이사회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회의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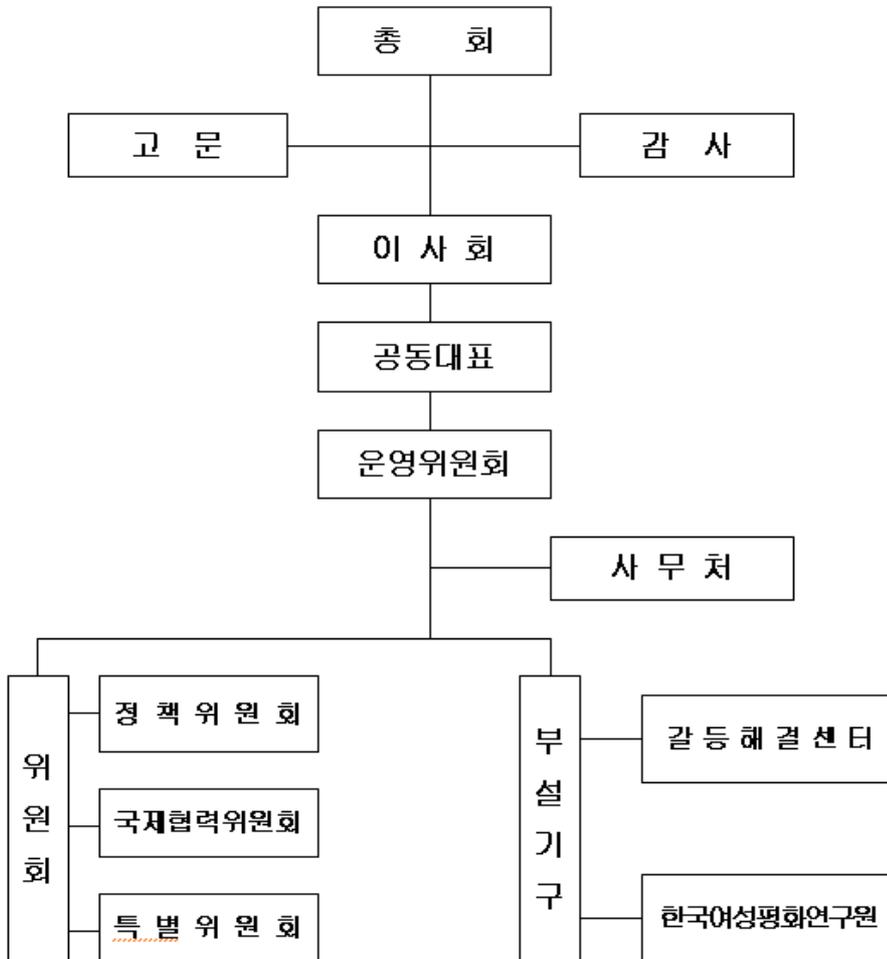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 현황



【 부록 】 2019년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28	[선언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
2/25	[성명]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2/28	[성명]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3/18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4/12	[논평] 남북 주도만이 한반도 평화의 동력임을 확인한 회담 국민을 믿고 남북관계 발전에 과감히 나서야
4/30	[선언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 발족 선언
5/3	[논평] 자루 속 송곳은 감출 수 없다 한반도 평화시계를 원점으로 돌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해야
5/16	[성명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인도주의적 지원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라!!
5/24	[성명]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Campaign 발족 기념
5/31	[기자회견]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기자회견 공동발표
6/27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날 짜	제 목
7/1	[논평] 남북미 정상외 사상 첫 판문점 만남,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동력이 되길 바란다.
7/18	[기자회견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 시민사회가 힘을 모읍시다!” “국민들의 힘을 믿고 결단 하십시오!”
7/25	[기자회견문]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8/7	[성명] 미국 정부는 한국인 방북자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 철회하라
8/12	[성명] 적대의 상징 한미연합군사연습, 이대로 지속할 셈인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9/20	[기자회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10/7	[선언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
10/28	[기자회견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11/14	[선언문]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
11/29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 사죄가 먼저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한다!
12/16	[성명] 미국의 과도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여성들은 분노한다.
12/17	[성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12/17	[기자회견문]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 짓지 말라!

[선언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

2019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2018년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함께 선언했듯이 ‘한반도에서 역사적 전환’, 즉 평화가 도래한 한 해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실질적 종전(終戰)을 선언하였다. 분단극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남북의 여성들에게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합의,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었다. 2018년 한반도에서 새롭게 시작된 평화는 2019년에 그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한반도 평화과정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로 완성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에서 여성들은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다. 우리는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할 때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이는 2000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에서도 천명된 내용이며,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제2기 국가행동계획에서 평화·통일 분야의 여성참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과 상응한다.

남북여성교류의 정례화와 남북여성협력을 통해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의 양 정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남북여성들은 여성들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다양하게 교류하고 접촉해야만 한다. 남북여성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는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평화번영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북제재는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균형 있는 민족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의 협력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걸려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도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평화번영의 주인이 되어야 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도적 위기까지 초래하는 대북제재는 신속히 해제되어야만 한다.

여성들은 2월말로 다가온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아울러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이 약속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짐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이 더욱 단단한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9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 새해맞이행사에서 남북여성들은 이 땅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교류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북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끄는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외 150여개 여성단체와 1,000여 개인 연명

[성명]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다가오는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역사적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어 제2차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쟁 유해 송환' 등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향한 걸음을 다시 한 번 크게 내딛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북미는 서로의 의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독자 제재들을 추가해왔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이 미뤄져 왔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지체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은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한 것은 물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결의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3월 4일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화 국면을 고려하여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군사훈련은 언제든 갈등을 초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상호 신뢰를 쌓고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부정적인 전망과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 우리는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상호 간의 노력으로 이행하여, 중국에는 북한과 미국이 과거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신뢰 협력 관계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이 지속되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 세계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실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강

력한 지지를 보내며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전 세계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2019년 2월 25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사단법인 평화 3000,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성명]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 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남과 북은 지난 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가로막혔던 남과 북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완전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 안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망한 온 겨레의 함성이 삼천리 강토를 뒤덮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은 우리의 삼천리강토를 강제로 빼앗고, 오랜 세월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를 강요해 온 일제에 대한 겨레의 대대적인 저항이었으며,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전세계에 드러낸 거족적인 항일독립투쟁이었다. 40여 년 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유물들과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연행과 노예노동, 일본군성노예 범죄 등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의 흐름을 가로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으며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남북연대를 넘어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제의 온갖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완전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1. 불법적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하는 모든 망언과 책동을 중단하라.
3.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한 강제징용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4.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5.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부당한 정치적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

국제사회는

1.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전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

2.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중심 접근 원칙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피해자 명예훼손과 범죄사실 부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해외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할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iCOOP 생협,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교민회, 김복동의 희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마리몬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여성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엄마민주당, 울산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인천여성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천도교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비전국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 LANA비, S.P.Ring 세계시민연대,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독일 코리아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교육정의재단, 미국 워싱턴 희망나비,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시카고여성찾라인, 아일랜드 나비, 아일랜드 촛불행동, 영국 '위안부'에게 정의를, 컬트포럼 비엔나,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한반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금요일(3/15) 북한이 협상 중단도 고려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협력하기를 호소합니다.

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시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왔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 평화여성회,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겨레하나, (사)세종여성,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3000,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학,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시민평화포럼, 실천여성회 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

모,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54개)

[논평]

**남북 주도만이 한반도 평화의 동력임을 확인한 회담
국민을 믿고 남북관계 발전에 과감히 나서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곱 번째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끝이 났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회담이다. 한미 정상은 회담직후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밝히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음을 알렸다. 덧붙여 우리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소위 ‘빅딜’로 표현되는 북한의 일방적 핵 포기만 강조했다 뿐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재개를 준비하겠다고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정작 북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실패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다시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 들 결과는 같을 것이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현 교착국면을 협상으로 타개할 의지가 있는지, 대화 대신 교착의 장기화, 현상유지를 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하자는 것은 협상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을 뿐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빅딜’에만 매달리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한계는 뚜렷하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남북 주도에 있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 졌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로 역할 변화해야 한다. 남북철도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간 합의 이행이 더더지고 있는 원인이 남북관계 발전을 비핵화와 한미공조의 틀 안에 가둬버린 결과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제 곧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이다. 우리 국민은 그날의 감격과 환희

를 잊지 않고 있다. 유일한 힘의 원천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에 있을 뿐,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힘을 믿고 남북관계 발전에 과감히 나서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선언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 발족 선언

전국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오늘, 정파와 이념, 세대와 성별, 직업과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분단과 전쟁,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발족한다.

해방 이후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과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철책선이 남과 북 사이만 갈라놓은 것은 아니다. 남한과 북한 사회 내에도 분단과 적대가 가져온 고통과 장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가장 큰 손실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다. 서로를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의 악순환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모든 이들의 자유, 안전, 행복을 위협해왔다.

조건과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남남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극단적 대결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갈팡질팡해온 한반도 정책이 보다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그리하여 불확실성과 오해의 덩어리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남북관계에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쉬운 길이어서 가려는 것이 아니다. 7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분단체제가 단 번에 바뀔 수 없으리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마음을 내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남한의 민관·정 협력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북한과 주변국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게 하면서 가야 할 길이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실패해온 일에도 도전해야 할 시간이다. 70년 분단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대전환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또 다시 낚은 시대의 잔재인 불신과 오해, 혐오와 적대 속에서 무위로 돌리고 더 큰 갈등의 나락으로 침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진보, 보수, 중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종단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시민과 함께 나눌 대화의 주제와 쟁점들을 함께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기여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시민들은 타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 대화의 공간이 열리자 모두들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에 집중했다. 대다

수의 시민들이 대화 이후 생각의 변화를 체험했거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참가자의 압도적 다수가 이 대화가 무척 중요하고 그 결과 또한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우리는 이 초정파적인 사회적 대화를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벌어나갈 것이다. 이 대화는 누구는 승자가 되고 다른 누구는 패자가 되는 그런 대화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사회적 합의는 차이를 일소한 천편일률의 합의가 아니다. 진보·보수·중도의 차이, 종교적·문화적 차이, 계층·지역의 차이, 성별·세대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합의다. 합의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합의를 지향하되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이해와 존중의 기초를 닦는 일을 중시하는 대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역동적 합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만의 대화와 합의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대표자들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같은 대화와 합의가 이어지도록 민·관·정 협력에 힘을 기울여 (가칭)평화통일사회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대화에는 휴전선도 국경도 제약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대화를 북한과 주변국과의 민간대화, 민관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시민회의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힘찬 뜻을 올린다. 이 땅의 주인들이여, 현재와 미래의 주역들이여, 쓰라린 과거를 딛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2019. 4. 30.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논평]

**자루 속 송곳은 감출 수 없다
한반도 평화시계를 원점으로 돌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해야**

패트릭 새너한 미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 하원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위한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작전, 힘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한미연합훈련 종료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훈련을 종료하지 않았다. 훈련 범위를 조정했다”고 하면서 “현재 구축된 훈련은 우리가 할 일인 ‘상시임전태세(Fight tight)’ 계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매년 봄 연례적으로 진행해 온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지난해 잠정 중단하고, 올해 종료를 결정한 것은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돼 왔다. 그런데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은 키리졸브 훈련 중단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 아니라, 키리졸브에 이어 진행되는 ‘동맹’ 훈련이 키리졸브와는 ‘성격이 다른’ 훈련이라는 주장이 허구일 뿐임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북미합의가 무산되고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후,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진행해 오던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이행도 답보상태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언제든 한반도가 다시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태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누누이 밝혀왔듯 북미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북미대화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려면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응조치로써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시계를 원점으로 되돌릴 생각이 아니라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종료’해야 한다.

2019년 5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인도주의적 지원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라!!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지난 5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분과 보고서'를 통해 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생산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북한 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까지 어린이 중 3분의 1이 하루 최소량의 식사만 공급받고, 그 결과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발육 부진이 우려된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4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대북식량지원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여성들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북식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해야 한다.

5월부터 9월까지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춘궁기가 시작되었다.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절차로 당장 결정을 해도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 결정을 빨리 내려 시행하고, 또 지자체와 대북지원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에 식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대북식량지원의 정례화를 통해 북한의 만성적 식량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만성적인 것이며, 올해에도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식량 지원의 정례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차관 방식 혹은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상호 윈윈하고 신뢰조성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3.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자율적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인도주의는 적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의 43%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어린이의 1/3이 최소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식량지원 문제를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5월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밝혔듯이, 북한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2019년 5월 1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YWCA연합회

[성명]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Campaign 발족 기념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들이 행동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국제여성평화운동 단체인 Women Cross DMZ, Nobel Women Initiative, WILPF와 함께 지난 2015년 30명의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남북의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여성평화걷기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평화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 출범하였다.

여성들이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66년 동안 분단체제로서 아직도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다. 66년의 분단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북의 핵개발과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가공할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주민들은 살아왔다. 분단은 그 자체로서 폭력인 바, 한국전쟁은 당장 종식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전쟁과 분단체제에서 성폭력, 젠더폭력의 피해자로서 살아왔고, 북 여성들 또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의 결과로 고통과 희생을 치루며 살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비평화의 요인이며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해 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1위)-중국(2위)-러시아(3위)-일본(8위)로 막강하며 한국 역시 세계 10위의 군비지출을 하고 있다(2018년 기준). 군비증강은 곧 군사적 긴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군사적 경쟁 구도를 평화의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는 것 이외의 확실한 대안은 없다.

이에 한국의 여성운동, 남북여성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여성평화연대 활동을 주도해 온 4개의 단체들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국제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 -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남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과 미국, 북과 세계를 소통시키는 화해의 촉진자 역할과 보다 적극적인 평화체제 형성의 당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유엔에 대한 요구 - 유엔은 한국전쟁에 다국적군의 참전을 결정한 주체로서 판문점에 이름뿐인 유엔사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전쟁과 분단의 지속에 관여하고 있다. 이제 국제평화를 위해 창설된 유엔은 한반도의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유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회원국은 한반도 종전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에 대한 요구 -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 중 북과 수교하지 않고 협력적 대화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서, 1950년 발발하여 66년 째 휴전 상태를 지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전쟁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북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로 나서야 한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여성들의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단지 숫적인 참여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여성참여의 모델을 발굴하고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참여의 실천을 통해 여성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 전체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9년 5월 24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기자회견]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기자회견 공동발표

2019년 5월3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연구자, 국회의원이 모여, 서울에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 양국의 피폭자들(원폭피해자들)이 함께 했으며, 미국과 필리핀에서 평화운동 대표가 참가했다. 연인원 300명이 참가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2018년부터 형성된 한반도 평화국면이 분단, 전쟁, 대결, 핵전쟁 위기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달성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사적 기회임을 확인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진전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립 구조를 해체하고 핵 위협 없는 평화의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핵무기 금지와 철폐,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세계적 흐름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세계는 2017년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핵무기사용의 위법성과 그 비인도적인 결과를 폭로해 온 피폭자와 핵 피해자들의 호소, 그들과 연대해 온 세계시민, 반핵평화운동의 역사적 성과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 핵무기 철폐로 전진해 가기 위해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

다른 한편,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들인 미, 러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다. 미, 러를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핵전력의 현대화, 신형핵무기 및 사용가능한 핵무기개발을 도모하며 핵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미국의 행동은 지역분쟁을 조장할 뿐이다. 또한 '핵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지난 1년여 간의 대화, 협상 과정과 최근 정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끈기 있는 대화와 협상이 요구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 남북 간 공식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양국은 대화 재개를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 대북 압박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축소된 규모지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실시되고 있다. 북한은 2차례에 걸쳐 단거리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남, 북, 미는 상대를 자극하고 평화국면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군사 행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북미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북미는 작년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싱가포르 공동 성명'과 그 정신에

입각해, 상호 간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등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의 산물이며, 그 근저에는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한반도에 평화, 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즉각 실시, 유엔 대북제재와는 상관없이 종단을 강행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정부당국에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헌법9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아직도 '북한 위협'을 구실로, 오키나와 미군기지 확장, 9조 개헌과 '전쟁하는 국가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한반도의 평화 과정을 방해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2002년 '9.17 평양선언'에 기반한 포괄적 협상에 의한 북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식민강점과 전쟁책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그러한 방향이야말로 일본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공헌하는 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국한될 수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모든 핵무기의 위협과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비핵·평화의 동북아시아를 위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 질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자안보협력은 공동안보에 기반해야 한다. 특정 국가를 적으로 상정하는 '군사동맹의 안보'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와 일본에 대한 이지스어쇼어 배치, 미·일·한의 미사일방어망 구축 움직임,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공식화, 역내 국가 간 군비확장 경쟁 등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평화에 역행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은 역내 주둔 미군, 미군 기지의 확장 반대, 축소·철거를 요구하는 운동과 연대의 의지를 표명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최근 부상한 한일 간 역사 이슈는, 전후 한일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이 불거진 것에 다름 아니다.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 최선의 방안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인권, 평화, 역사 정의와 같은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포럼참가자들은 한일 간 그 어느 때보다도 교류가 급증하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일 시민들의 연대가 확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제사회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가 초래한 반인도적 참상의 역사를 직시하고, 당시의 참혹한 기억과 원폭이 초래한 병마와 싸워 온 피폭자들의 '다시는 핵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생전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 싶다'는 호소에 답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피폭자가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가적 원호와 보상의 근본적 강화를 요구한다. 한반도 남북한의 피폭자는 일본의 식민강점과 군국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피폭자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피폭자들에 대한 국가적 원호와 보상·배상을 더욱 강력히 요구해 갈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폭자, 그리고 핵실험피해자들의 운동과도 연대해 갈 것이다.

피폭자들은 '피폭자 국제서명' 운동을 제기해, 핵무기금지조약 성립에 크게 공헌했다. 포럼참가자들은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75년'이 되는 2020년까지 '피폭자 국제서명'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국제사회에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 서명, 비준을 촉구한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에게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 비준을 통해 핵군축, 핵무기 철폐의 도도한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남북한과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서명, 비준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 그리고 핵발전소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 및 생태계에 미친 핵 영향의 실상이 말해 주는 것은 '탈원전', '원전제로'야말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핵무기 금지, 철폐 운동은 '탈원전', '원전제로' 등 모든 핵의 폐절을 지향하는 운동과 연대해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분쟁과 전쟁,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에서 여성은 젠더기반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평화구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의 참여를 통해 군비경쟁에 의해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 소수자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 젠더기반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고 인간안보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폭력,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워 온 여성운동의 관점과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국경을 넘어 연대해 온 여성운동의 역사적 성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임을 증명해주

었다. 포럼참가자들은 전쟁하지 않겠다! 9조 부수지 말라! 총결기행동실행위원회가 주도하는 6월7일, 8일 도쿄에서의 한일 공동행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시민들은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비핵·평화, 더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해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공동행동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참가자 일동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27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합의 없이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정상은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금의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이행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핀란드의 국제구호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는 20년 넘게 이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엔이 올해 상반기 ‘의료 지원’, ‘식량 지원’, ‘시설 복지 지원’ 등 22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인류 보편의 정신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방북이나 사업추진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북미 대화의 중단과 제재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9년.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늘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북미 협상이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6월 27일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 겨레하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구속노동자후원회, (사)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연구소.(사) 세종여성,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사) 조각보, 참여연대, (사) 통일나무, (사) 통일맞이, 평화3000, (사)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논평]

**남북미 정상외교의 사상 첫 판문점 만남,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동력이 되길 바란다.**

남북미 정상외교가 사상 처음으로 만났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전쟁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앉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에 기록될 장면들로 가득했던 판문점 회동은 만남 그 자체로 정전 66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판문점 회동으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후 우려됐던 협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회동 성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밝힌 대로 두 정상간의 신뢰와 탑다운 방식의 대화의지가 굳건함을 보여 주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는데 합의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에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북한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실무협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가 두 정상 간에 오갔음을 시사했다.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미국이 최근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해법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여전히 그렇다. 또 최근 형태를 달리해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해 북한이 비판의 강도를 높여온 것도 협상의 시작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하노이 회담을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검토되는 "올바른 협상" 시작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남북관계가 더 중요해 졌다. 북미대화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남북관계가 탄탄하면 리스크는 줄어든다. 중단상태나 다름없는 남북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남북미 세 정상외교가 헤어지던 순간에 뜨겁게 포용하던 남북 두 정상외교의 모습은 긴 여운을 남긴다. 이제 우리 정부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과감하게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남과 북의 약속,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다.

2019년 7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회견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 시민사회가 힘을 모읍시다!”
“국민들의 힘을 믿고 결단 하십시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외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실무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고위급 대화도 소식이 없습니다.

북미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바로미터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기에 국민적 지지가 높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개선 과정에서 대북제재 또한 중단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다양한 노력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믿고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우리 시민사회 또한 금강산 방문 운동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협력의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더 빠르게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이때에,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깁시다.

2019년 7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기자회견문]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 일제와 그에 부역한 기업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인정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단과 이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가로막기 위해 수출 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과 정치외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한국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한다. 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다.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과 국민들 일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도발이다. 아베 정권은 뒤늦게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국을 아예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하고 있어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과거 불법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 편법적 보복행위를 총동원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자발적인 항의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한 아베 정권에게 있다.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적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에 협력해야 한다.

더욱이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헌법 9조의 개정하여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지닌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일본 평화헌법은 군국주의 침략의 과거사로 퇴행하지 않으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의이며,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아베 정권은 이 안전장치를 해체하여 전쟁 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서라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계기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70여년 만에 어렵게 본격화한 평화협상에 장애를 조성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구상을 막아내는 것은 일본과 한반도, 동아시아와 지구촌 모든 시민들의 책무다.

정부에 제안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근거 없는 경제적 보복조치에 맞서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침략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권력이 해야 할 모

든 책무를 흔들림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베 정권이 공언하고 있는 헌법 9 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방위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와의 군사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군사동맹수준의 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속하면서 아베 정권이 제안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군사협력 구상에 한국이 하위파트너로 편입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할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구상이 역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아시아에 평화공존의 협력체제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치권에 요구한다. 국민 권익을 옹호하는 민주적 대의기구의 구성원답게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경제적 보복, 한일 갈등 도발 행위에 맞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정치권은 자극적이고 감정적 색깔공세와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등 일제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사법주권을 지키며, 일본 아베 정권의 무도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항의하고 경제적 주권과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한일의 경제협력 당사자 및 세계 무역질서를 상대로 아베 정권이 취하고 있는 자해적인 규제조치에 항의하고 이를 철회시킴으로써 정의와 평화에 바탕을 둔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정책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동아시아라는 터전 위에서 서로 의존하며 더불어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미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다. 한일 시민사회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이 조장하는 편견에 맞서, 국가의 폭력과 일탈에 의해 침해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경을 넘어 연대하자. 동아시아 평화 공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일본 평화헌법 체제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자. 우선, 모두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반성 없이 정당화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파괴하고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철회시키고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게 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8.15 한일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올해는 3.1운동 100년을 맞는 해이다. 100년 전 우리는 식민지배에 맞서 정의와 인도를 위해 거족적으로 떨쳐 일어섰던 매사에 배타적 감정의 치우침이 없이 항거하자는 정신을 독립선언과 공약3장으로 천명하고 실천했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3.1운동 그 저력으로, 촛불 그 기억으로 모두 함께 광장에 모이자. 진실, 정의, 평화, 진정한 공존을 위한 촛불을 밝히자. 또한 그 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진정한 공존의 미래를 위한 시민의 촛불이 따로 또 함께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일본의 동료시민들에게도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2019년 7월 2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사회적협
동조합동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
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
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충남시
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KYC

[성명]

미국 정부는 한국인 방북자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 철회하라

지난 6일,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AT)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8월 5일부로 시행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2017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것으로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20개월이 넘는 지금 시점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관계개선을 역행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 진정성 있는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치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우리 국민 수는 3만 7000여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기업인들도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 미 재무부는 국내 시중은행 7곳, 민간 기업 5곳 등에 컨퍼런스 콜을 요청해 대북제재 준수를 압박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까지 더 해지면 사실상 미국이 일일이 우리 민간과 기업의 남북교류협력을 통제,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해 11월 한미워킹그룹이 신설된 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원활한 협조보다 ‘굴레’가 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한국인 방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는 명백한 대북제재 조치이며, 남북관계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며, 미국이 개입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9년 8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

적대의 상징 한미연합군사연습, 이대로 지속할 셈인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대화의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남북미간 적대관계의 상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어렵게 되살린 지금, 굳이 '군사연습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상식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당국은 이번 훈련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훈련의 이름으로 유력했던 '동맹 19-2'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미대화를 의식한 조치이다. 그러나 북에 대한 선제 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 등 공격적인 한미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때문에 북에게는 충분히 공격적인 군사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F-35A을 비롯한 전력증강과 군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무기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이 '공격형 훈련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2018년 한미당국과 북은 한미군사연습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라는 동시적 행동을 통해 대화를 시작했다. 그 사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간에는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채택되었다. 이번 군사연습은 북미대화의 입구를 틀어막는 것이며,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합의를 무색케 하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도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적대 행위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훈련이 끝나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기대에 불과하다.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지속된다면, 남북간, 북미간 신뢰구축은 요원해 진다. 어렵게 맺은 군사합의도 깨질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2019년 8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회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 발언1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한국인은 분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5,000년 이상 우리는 한민족, 한 나라였습니다. 35년 간 일본 강점기 후, 한국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독립을 기다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분단과 4백만의 생명을 앗아간 잔인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종식을 선언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주민, 재외 동포들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평화는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고령의 이산가족 한국인이 형제자매, 자녀, 손자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제 할머니가 그들 중 한 명입니다. 고향을 다시 보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년은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 간 치열했던 한국 전쟁은 66년 전에 끝났지만, 분단과 냉전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치열했던 전쟁은 한반도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은 심리를 황폐화하고 북한 주민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내부 분단의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 전쟁을 끝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이 평화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인의 희망을 존중하고 남북 간의 협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인들은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미국의 최대의 압박작전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천만 한국인의 운명이 위태롭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려면 평화가 우선해야 하며,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종식 선언을 미국에 요구합니다.

● 발언2

코즈에 아키바야시(Kozue Akibayashi):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ILPF) 전 대표

저는 2015년 DMZ 평화 걷기에 참가한 전 세계 30 명의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의 종식과 평화구축에서의 여성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희망하는 많은 일본인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연맹은 가장 오래된 국제 여성 평화기구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세계의 비핵화와 비무장화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핑계로 일본 정부는 일본 오키나와 등의 군사화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인의 안전과 복지, 생존까지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평화와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일 갈등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

의 보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반도 식민 통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의 공식 참전국이 아니었지만, 그 책임은 매우 큼니다. 수십 년간의 고통과 불신의 치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 전쟁 종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발언3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사무총장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외교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창은 매우 좁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평화 운동이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이 참여할 때 평화 협정의 달성가능성과 내구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성, 평화와 안보, 국가행동계획을 촉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8개 결의안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82개국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의를 문서가 아닌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포함하여 여성은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겪어왔습니다. 미국 제재의 강화로 북한 여성들은 보건, 식량 및 생존에 필요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누가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만 명의 섬유 근로자의 86%가 바로 여성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권 증진의 핵심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유 증대를 외치면서, 북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여성들은 최전선에서 평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1951년 미국이 북한에 폭탄을 터뜨렸을 때, 17개국에서 모인 21명의 여성들은 전쟁의 피해를 기록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한국 여성은 평화의 이름으로 DMZ를 건너는 최초의 민간인이었습니다. 2015년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는 10,000여명의 한국 여성들과 행진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걸어가며 이 중요한 유산을 이어 나갔습니다. 여성의 평화 운동이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캠페인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 발언4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 여성운동가

2015년 DMZ 평화 걷기를 통해 여성행동을 보여준 전 세계 30명의 여성 중 한 명으로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이 한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한국인의 고통, 분리, 트라우마를 대표하는 DMZ를 물리적으로 건넌으로써 상징적으로 살아 있는 연결을 만들어냈고, 이는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DMZ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과 긴 분단의 상처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헤어지고, 핵무기에 대한 변명과 미국의 값 비싼 군사적 약속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행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국경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

리의 몸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는 치유될 수 있는 상처입니다. 불과 3년 후, 저는 한국의 두 지도자가 DMZ에서 만나 “한반도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할 것 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진한 목적인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으며, 양측 군인들이 악수를 하고,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DMZ의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을 수 세대 동안 분단시킨 대립을 종식하려는 양측 지도자들과 그들의 결의에 경외를 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평화는 두 명의 미국 장교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에 38선을 처음 그린 워싱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도부는 평화 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내려놓도록 설득하려면, 먼저 그들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제 저의 새로운 친구인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가 말했듯이 비핵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미국은 평화 협정을 협상함으로써, 한국인과 정부의 희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평화 협정은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국과 미국 나아가 세계의 안보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할 때입니다. 나는 백악관의 현재 주인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 대신, 2019년 3월 평화 협정을 통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의회 결의안 152(H.Res.152)를 제출한 로 카나, 바바라 리, 앤디 김과 같은 소수의 용기 있고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들을 포함한 미국 의회 인사들을 믿습니다.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이 주도하는 고무적인 풀뿌리 운동 덕분에 의회 결의안 152가 많은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계단 씩, 한 지구에서 다음 지구로,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 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의 구축을 촉구합니다. 여성이 참여할 때 평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라이베리아에서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여성들이 이미 이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는 것에서부터 의회 의원들에게 로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접 DMZ를 건너는 것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는 나무와 같습니다. 평화는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자라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20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선언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외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려는 듯이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약이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 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 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미국도 제재의 틀에 더 이상을 가두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가 팍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금강산 관광만큼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줄 때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큼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

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각계에서 진행 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 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빨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 돼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 협력 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이 오랜 시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자체로 새로운 관광 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로 합의한 날짜에 와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도 우리 정부와 현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 그 동안 방치되어 낡은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를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고,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간 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통계국에 따르면 12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어느 한 나라도 유엔이나 미국에게 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은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경제구상, DMZ국제평화지대 구상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조차 재개하지 못하고서야 DMZ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란 현실성 없는 말의 상찬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시킬 것인가? 언제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가?

통일부는 25일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대북 제재의 탓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 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지금 직면한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중차대한 기회를 이대로 저버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2019년 10월 28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선언문]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

정부는 남북 정상의 약속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유엔과 미국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1,000인 여성들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남북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급기야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여성들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대북 제재라는 이름으로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

인도적인 대북지원 조차 인정되지 않고,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금강산관광조차 막아나서는 미국정부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과정 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
사죄가 먼저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위자료는 이미 해산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여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가해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범국 일본은 한 세기가 다되도록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참혹한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에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히려 전쟁가능국가로의 전환을 공공연하게 피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한반도 불법 강점과 일본 기업·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 안은 한국 기업과 국민을 기금 조성에 끌어들여 일본의 책임을 무화시키고 피해자를 삭제했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는가!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공식 해산함으로써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를 배제한 지난 정부의 밀실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의 분노로 해산됐음에도 문 의장 안은 이러한 재단의 기금 잔액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무효화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는 꼴이며, 피해생존자를 다시금 모욕하는 일이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 정부에 사죄와 법적책임을 요구해왔다. 피해생존자들이 30년간 싸워왔던 것은 전쟁과 전시성폭력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이는 가해자의 철저한 사죄와 반성으로 시작되어야만 가능하다. 사죄가 먼저다. 국회의장은 사죄 없는 위자료로 이 문제를 봉합하려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버려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진 중인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정부와 국회는 경제와 안보를 핑계 삼지 말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전범국 일본은 하루속히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2019년 11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미국의 과도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여성들은 분노한다.

2020년 정부 예산 513조

2020년 국방 예산 50조 1527억 원, 정부 예산의 약 10%

2020년 국방 예산의 12%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

그러나,

2020년 외교·통일 예산은 5.5조,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1,264억원에 불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약 6조원(50억 달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것은 2019년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여성들은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11차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 번째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절대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기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 1,264억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의 약 12%에 달한다. 외교·통일 예산은 합쳐서 고작 5.5조 원에 불과하며,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1,26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2%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왔던 비용(2015년 기준 약 5조 5천억 원)까지 합하여 무려 약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우리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군속 인건비, 군인가족 지원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해외미군 작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해외미군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국이 해외파병비용 등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원래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것이다.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과 기금은 1조 1,264원인데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안전한 돌봄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인권 보호강화,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과연 정부가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해 6조 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면 어떤 긍정적 변화와 효과가 발생할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배정받은 적이 없어서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여성들을 비롯한 가족과 청소년, 청년들의 일상의 안녕과 보편적 삶의 질이 개선되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힘을 믿고 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분노한다.

한국정부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반평화적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미 군사 전략 수행에 대한 참여와 지원 강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 많은 기여 논할 게 아니라 불균형한 한미동맹 조정에 나서야

오늘(12/17)부터 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동안 터무니없는 금액을 들이밀면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 범위를 뛰어넘는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다. ‘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부자 나라’ 운운하며 한국이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넘치도록 지원해왔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5년 기준 5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제10차 협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산된 미집행액도 현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분담금보다도 많은 액수다. 더욱이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0% 이상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의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은 증액에 더해 항목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10차 협상 때도 합의하지 못한 항목 신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SOFA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에 한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SMA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오만한 행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

는 한편 최근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게 ‘동맹 기여’를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줄곧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약 35조 원을 지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의 임무를 넘어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른 아태 지역 신속 기동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대략 2만 8,500명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며, 병력 전진 배치의 주목적은 미국 국가안보 증진"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금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동맹 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이지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릴 때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은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한국의 외교와 통일을 위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의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인 SMA가 더 이상 한국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로 돌아와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한국의 비용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2019년 12월 17일

(사) 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고양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문]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 짓지 말라!

방위비분담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밀려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는 졸속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협상이 전례 없이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다가, 미국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협상 카드를 내놓는 등 협상 타결의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 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다수 한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동아일보, 2019. 10. 14)이라고 경고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2019. 11. 15) 직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MBC, 2018. 12. 29)이라며 10차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 미국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받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고 말았다. 비건 대표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시 방한한 것으로 보아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미국이 남북관계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해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미국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리로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 12. 6).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위해 남북문제에 이어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이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들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

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미국 무기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협상 카드’는 자충수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협상 카드’ 삼아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패배주의적 접근이다. 또한 사실상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눈가림하는 대국민 기만이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예정된 미국 무기도입비도 10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미국 무기도입은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아 우선 우리 예산으로 오염을 정화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또 다른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이라는 흑을 붙이고 말았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5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한겨레, 2019. 12. 12). 이 또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 역시 자충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계속적으로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추정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자산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이라크와의 명분 없는 분쟁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

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얽은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선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 폐지, 우리 군이 무상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 오히려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지불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 많다. 특히 1957년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에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도 받아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커녕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불법무도하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 요구를 꺾어내기 위해 '미군 및 미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없는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군인 인건비는 약 8800만 원, 군무원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미 국방부,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이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아우성인 한국 상황에서 돈 벌러 온 고액 연봉의 미국인 인건비를 한국인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 육군의 2020년 군사건설비 관련 설명자료(『Military Construction, Army』, 272~273쪽)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평택기지 미군 가족 주택 327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진행되는 미군 가족 주택 432채 건설사업(총사업비 3519억 원)도 한국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던 사례를 볼 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미군 가족 주택 건설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세계패권전략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 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readiness) 유지비” 항목 신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12. 4). 여기에는 작전·훈련 비용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와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의 상당 부분이 포괄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 (2019. 10. 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을 허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요구했다가 관철하지 못했던 작전지원비(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를 이번 협상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은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장비수송 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진배치를 순환배치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게 된 미국의 정책 실패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략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와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주둔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약과 협정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협상이다. 이에 한미 당국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협상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가 관철되면 그것만으로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 예산 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50억 달러에 한국이 기왕에 부담하던 직·간접지원비(2015년 기준, 약 5.5조 원)까지 합치면 무려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만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민생복지에 대한 심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 협상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과 민생을 희생시키는 강압적 협상이다. 이런 협상에 임할수록 한국은 수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얻을 것이라고는 굴욕적인 결과뿐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 당국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협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10차 방위비분담협정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당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올해 말로 방위비분담협정은 폐지된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애초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 이겨 한미소파 5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을 폐지하고 한미소파 규정대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군으로의 성격과 임무가 명확한 터에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공평한’ 분담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이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는 허세에 불과하다. 중국을 포위하는 데 사활을 거는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민의 68.8%도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

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YTN, 2019. 11. 25).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 압력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노컷뉴스, 2019. 11. 7).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키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WC한국위원회 (총 41개 단체)

【 부록 】 2019년 홍보자료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네트워크 워크숍 웹자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9년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워크숍 일정 안내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와 한반도 평화 과정,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 체제는 2019년도 평화의 핵심 키워드이지만, 두 의제가 담론적, 정책적, 실천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 행동 계획 수립 촉구 활동, 『여성·평화·안보 역량강화 매뉴얼』 개발,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와 남북여성교류 및 DMZ여성평화걷기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성 평등한 한반도를 구상하는 담론적, 실천적 이니셔티브를 마련함(전문가 워크숍)과 동시에 이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토크쇼 개최와 교육 책자 발간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간 2019년 5월 7일(화) ~ 7월 9일(화), 총 6회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참여 대상

- +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여성 단체, 북한 여성연구자, 남북관계·국제관계 전문가, 언론인 등
- + 정부 관계자: 통일부·외교부·국방부·여가부 관계자 등
- + 2030 청년세대: 대학원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남녀 구분 없음)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02-929-4846 / 4847 참가비 없음

워크숍 일정

5월 7일(화) 18:30	5월 21일(화) 18:30	6월 4일(화) 18:30
Women, Peace, Security 글로벌 의제 및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과정: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발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대구가톨릭대 교수	성인지적 한반도 평화 아젠다(s) · 한반도 평화 과정,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재구성과 의미 있는 여성 참여 모델 만들기 발제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 공동대표 조영미 2020 Women-led "Korea Peace Now" Global Campaign 여성평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차장 고유경 WILPF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간신타트	분단 폭력과 젠더 폭력: 정의, 범주, 내용 · 분단, 군사주의, 여성혐오, #미투의 연관성 · 평화문화 형성의 방법과 과제 찾기 발제 김엘리 영지대학교 객원교수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서보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월 18일(화) 18:30	6월 25일(화) 18:30	7월 9일(화) 18:30
북한 사회의 변화: 시장화와 북한 여성의 삶 · 북한 여성의 일상 들여다 보기 · 남북 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권리 향상의 과제 발제 박연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윤보영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원 토론 김화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상임연구원 임주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차장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 한반도 평화 과정과 남북 여성교류 · 남북 여성 경제역량 강화와 협력 과제 발제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영학부 교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숙영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이영훈 SK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여성평화교육 · 기존의 통일교육, 평화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 젠더와 평화교육, 방법론과 내용(s) 발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토론 김정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연구원 이권명희 인권 평화연구소 상임 전문강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여성·평화 토크쇼

2030년 통일 한국의 모습 여성과 청년이 기대하는 것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평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2030년 가상(假像)의 통일 한국, 그 명과 암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간 2019년 8월 9일(금)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장소 서울시민청(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

● **진행** 박현선 이화여대 겸임교수

● **등록 및 인사 나눔** - 18:30~18:50

● **패널 토크쇼** - 18:50~19:30

- + 2030년 통일 한국(가상): 명과 암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청년들이 바라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 전지예 서울청년겨레하나 회원
- +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 —————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퍼실리테이션 토크쇼** - 19:30~20:00

- + 그룹 퍼실리테이션으로 2030년 통일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 모아보기

● **마무리 토크쇼** - 20:00~20:30

- + 패널들의 답변과 전체 토크 이어가기



공동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서울청년겨레하나 **후원** 여성가족부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02)929-4846/4847

참가신청 신청주소 <https://forms.gle/trFJdmUn7STHim9G8>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9 통교협 프로젝트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과정

- 일시: 5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18:30-21:30(총21시간)
- 대상: 평화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분, 평화통일교육 진행자로 기여할 분 25명 내외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4847
- 참가신청: <https://forms.gle/7UTpxjqBV99Y3eHn9>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평화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로 참여적이고 의사소통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과정**”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PROGRAM

5월 23일(목) 18:30

평화통일교육의 이해

김정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정서윤
민주평통 주무관

5월 30일(목) 18:30

한반도 평화란 무엇인가?
분단의 구조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6월 13일(목) 18:30

차이와 인정
적대감 해소와 편견 극복

이권명희
여성사회교육원 교육이사

6월 20일(목) 18:30

대화로 평화통일 이끌기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6월 27일(목) 18:30

교육진행방법론
교육기획안 구성

김지선
가톨릭대학교 강사

7월 4일(목) 18:30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배우기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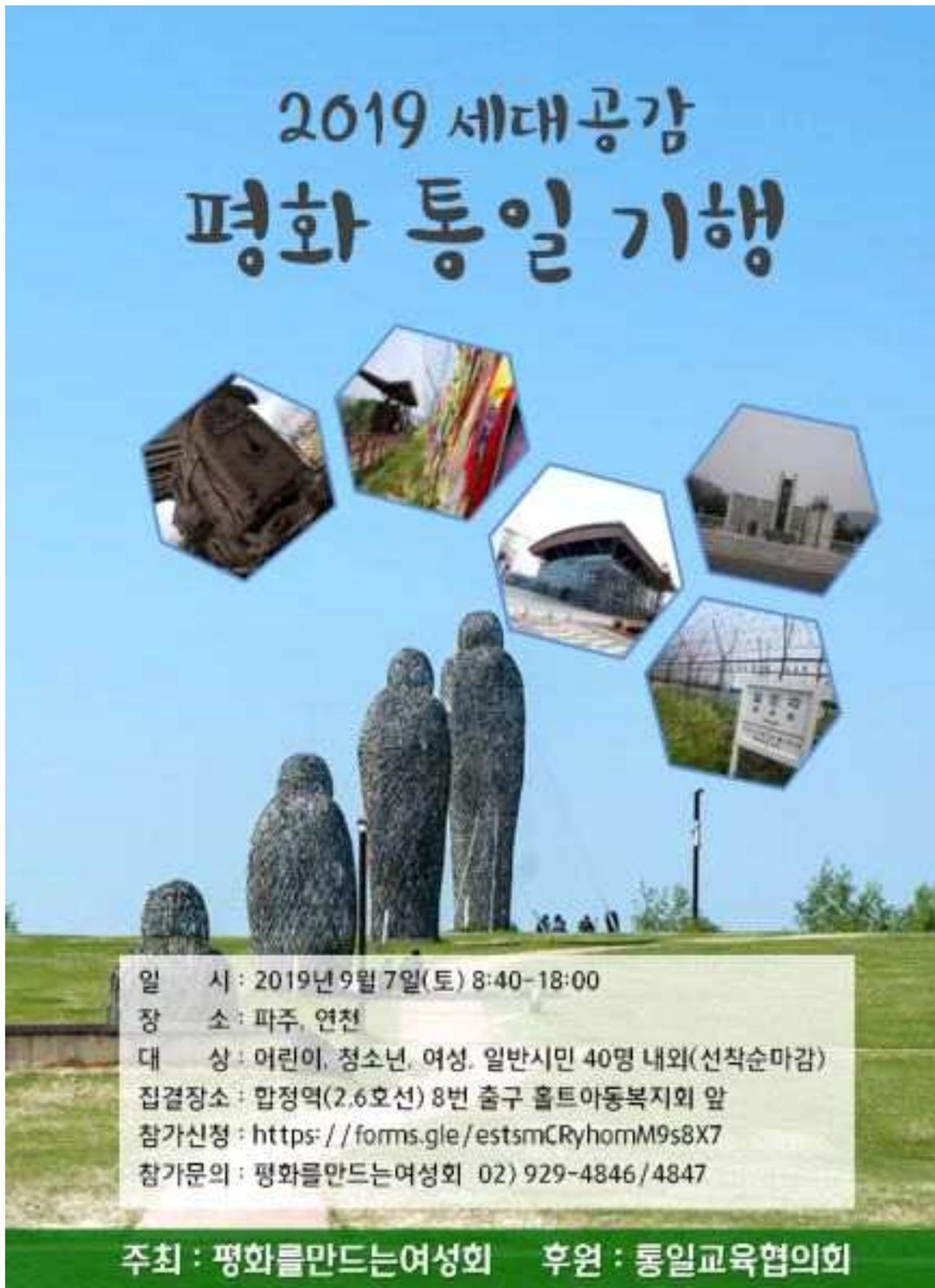
7월 11일(목) 18:30

조별 교육진행
시연 및 수료식

김지선
가톨릭대학교 강사

박인혜
갈등문화연구원 원장

** 80% 이상 참여시 수료증 발급



The poster features a blue sky background with the title '2019 세대공감 평화 통일 기행' in large, bold Korean characters. Below the title, several hexagonal images are arranged in a circular pattern, showing various scenes: a train, a person in a field, a modern building, a city skyline, a stadium, and a sign.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everal tall, dark, textured sculptures of human figures on a grassy field.

**2019 세대공감
평화 통일 기행**

일 사 : 2019년 9월 7일(토) 8:40-18:00
장 소 : 파주, 연천
대 상 :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일반시민 40명 내외(선착순마감)
집결장소 : 합정역(2.6호선) 8번 출구 홀트아동복지회 앞
참가신청 : <https://forms.gle/estsmCRyhornM9s8X7>
참가문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 929-4846/4847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 통일교육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요영화제

북녘 여성과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자

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여성들이 먼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자유롭게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영화를 통해 북녘 여성들의 사랑, 희망, 고민, 노력의 현장을 찾아가려합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매월 수요영화제를 열어, 전문가들의 해설과 함께 북녘 여성들의 삶과 꿈을 이해하고, 평화의 상상력을 키우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수요영화제는 평화의 한반도를 꿈꾸고 가꿔나갈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오후 7:00-8:30 영화 감상

오후 8:30-9:30 강의 및 토론

제1회 9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여성미래센터 B1

제목 : **우리 집 이야기**(100분, 2016)

주제 : 북한식 사회주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 지나?

강사 : 박현선(이화여대)

진행 : 김정아(건국대 통일인문학 연구단)

제2회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 스페이스 36.5

제목 :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81분, 2012)

주제 : 곡예사 꿈을 찾아가는 북녘 여성 노동자

강사 :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

진행 : 이나영(중앙대)

제3회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시 스페이스 36.5

제목 : **사랑의 샘 1, 2, 3**(40, 47, 49분, 2009)

주제 : 사랑과 지성, 여성의 힘으로 빛나는 강서약수

강사 :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진행 : 이애덕(흑석초)

제4회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스페이스 36.5

제목 : **분조의 주인**(95분, 2011)

주제 : 전기와 비료가 떨어진 농업을 다시 살리는 여성 농민

강사 : 윤보영(동국대)

진행 : 김귀옥(한성대)

참가대상 : 여성, 활동가, 학생과 교사, 시민 등

1회 참가비 8천원 (김밥 및 다과비 외)

신청 문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02) 929-4846/4847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리플릿】

또 다른 세상을 여는 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 세상을 열기 위하여 성평등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당의 갈등과 폭력을 분석하고, 평화와 통일의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며, 평화통일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전쟁없는 세상, 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일상에서부터 지역, 세계로 연결된 폭력과 무력갈등을 평화적 감수성으로 비판하고 갈등해결교육과 평화교육훈련을 통해 평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평화문화를 입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성평등한 다원적 사회를 위하여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평화적,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여성들의 의의있는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연대를 위하여

여성인권실장, 무력분쟁해결, 평화통일, 탈군사화를 위해 세계곳곳의 여성들과 함께 국내적,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평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속적인 평화의 조건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들의 지혜와 감수성, 힘을 하나로 모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Women, Peace, & Security(WPS) 여성·평화·안보는 왜 중요할까요?

1 여성과 소녀들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등과 깊이 남성이나 소년들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합니다.

- 1990년대 이후 민족분쟁·종교분쟁·종교분쟁 등 내전에서 발생한 난민의 8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 1996년 르완다 내전 당시 인종청소 과정에서 약 50만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2 여성들은 평화합정 체결 등
평화 구축 과정(peace process)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평화합정의 서명자 중 여성은 2.9%, 평화 협상 과정에 조장자 여성은 3.2%에 불과합니다.

3 무력 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1980~2011년 사이에 서명한 평화합정 중 여성이 평화합정에 참여하는 경우 15년 이상 합정의 지속성이 유지 가능성이 38%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직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 좋은 일자,
인권과 정의를 위한 미래를 쌓을 수 있다.

- 크리 아난 (전 UN 사무총장) -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다육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리에 적극 참여하고,
본국 지역의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7차 UN총회 기조연설 중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호

UNSCR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UN안보리 결의안 1325호란?

◎ 채택 배경과 의미

1990년대 이후 분쟁지역에서 대규모 조직적 강간이
발생하였습니다.

- ▶ 유엔의 국제사회는 무력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주목하였습니다.
- ▶ 무력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여성과 남성, 소녀·소년, 노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안정실자로 채택합니다.
- ▶ 평화구축과정에서 참여, 보호, 예방, 성주류화를 위해 국가들이
노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1325 결의안의 4가지 기둥



UN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 국가행동계획이란?

'국가행동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규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수립하는 종합적 정책 계획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회원국이 1325 결의안의 자발적 이행을 하도록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2005년 빈이코가 최초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2019년 10월 기준) 82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유엔 회원국의 42%)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에서 여성 참여 증진
목표의 예방과 보호,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 중
49번째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4년 1기 국가행동계획(2014 - 2017) 수립
2018년 2기 국가행동계획(2018 - 2020) 수립

-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 참여부처:**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KOICA

◎ 대한민국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취지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정전 협정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개발원조공여국 동시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발전과 그 속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대를 지향하며,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방·평화·통일 외교 등 주요 국가 정책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주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위 '일본부' 제도로 인해
분쟁 하 폭력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당사국으로, 분쟁 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관심 제고를 통해 분쟁 하 피해자
예방과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2기 국가행동계획 (5개 분야 12개 목표)

- 여성**
 - 분쟁 예방, 평화 활동 관련 중차대 여성·평화·안보
인식 및 역량제고
 - 국외·안보, 평화, 통일, 재난·위기관리 정책에서의
성인지 접근 확대
 - 국제법령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활동 강화
 -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참여**
 - 국외·안보·평화·통일분야에 여성참여 확대
 - 국외·안보·평화·통일분야에 인·관 기반연계 활성화
- 보호**
 -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
 - 군 성폭력 피해 지원
 - 피해 여성 및 난민 지원
- 주요 및
초점**
 - 여성, 평화, 안보 관점에서 개발협력 추진 기반 마련
 - 개발협력에서의 분쟁지역 여성의 참여와 보호지원 강화
- 이행
점검**
 - 이행 기한 내실화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 CMS 회원(후원)회비 약정서 -

CMS란?

상기 후원회비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매
월 약정하신 금액을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익계 출금용 계좌로
후원하게 됩니다.

송 회원 가입 시 송

이름	주민번호	
이름(한자)	주민번호(한자)	
직주소		
계좌번호	계좌주	
계좌번호	이계월	이계일
월회액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50,000원 □ ()원 □ ()원 □ ()원	년회액
<input type="checkbox"/> CMS가 아닌 경우 후원회비외용		
후원회비 4회(4월)에 대한 입금수입을 위해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총대 인계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력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단, 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지는 CMS 후원회비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소: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6 여성미래센터 401호
 연락처: 02-929-4845/4847 이 메 일: wps@peacewomens.com
 후원계좌: 388-810005-03104 (우리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9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여성·평화·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교육자료집

201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원 가 입 서

이 름		주민번호	
이동전화		전자메일	
집 주소			
거래은행		예금주	약정금액
계좌번호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 후원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계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0년 제24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 2020년 1월 31일

발행인 : 김정수

발행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_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7 / 팩스 02-929-4843 / 이메일 wmpeace@naver.com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wmp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